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4 Vol. 208

극장용 마당놀이 _ 학생부군신위 '환장하겠네'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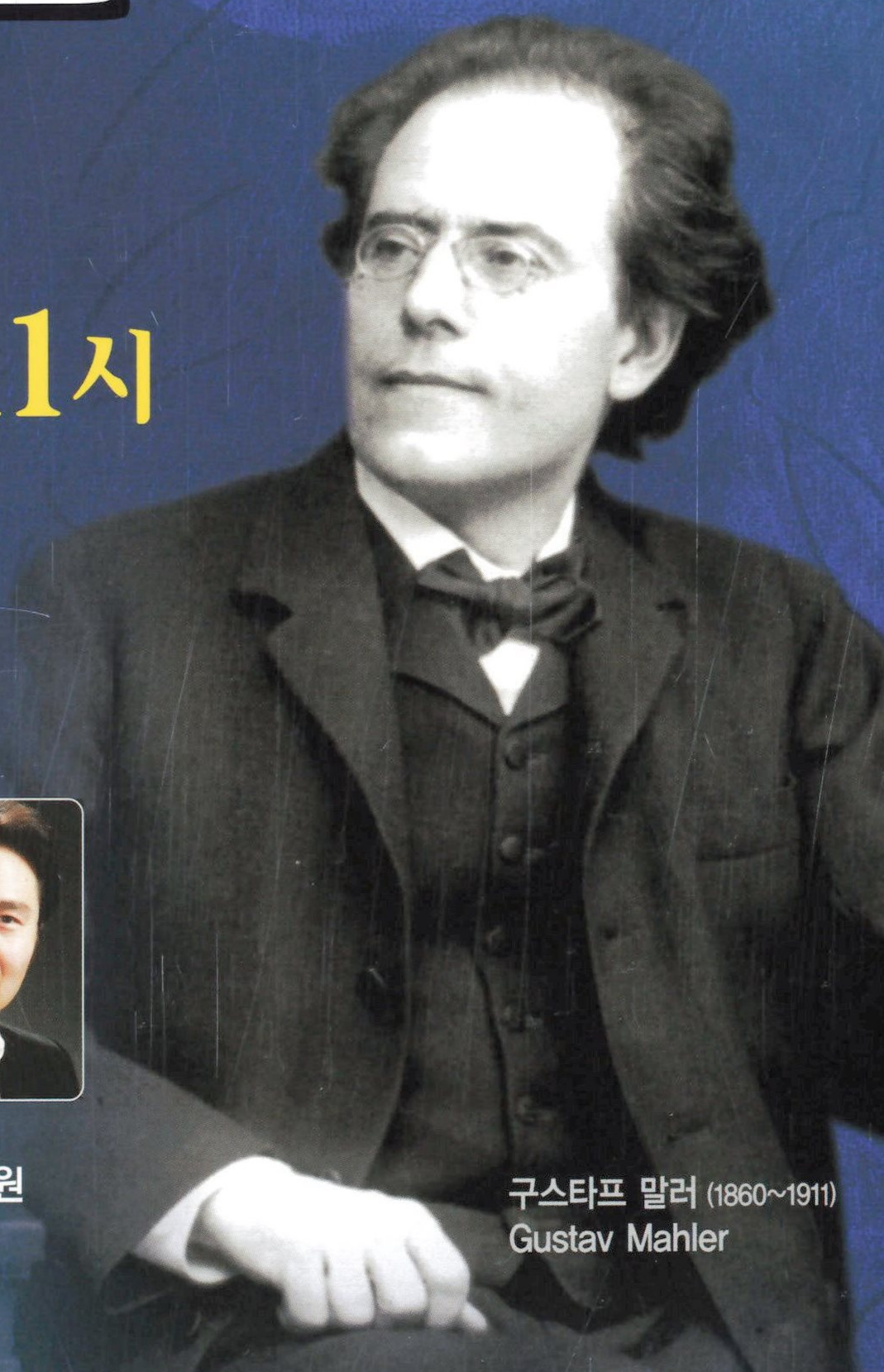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Ⅱ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2009.4.29(수)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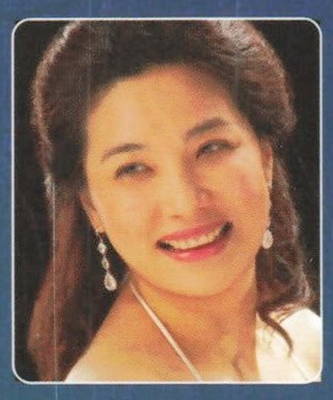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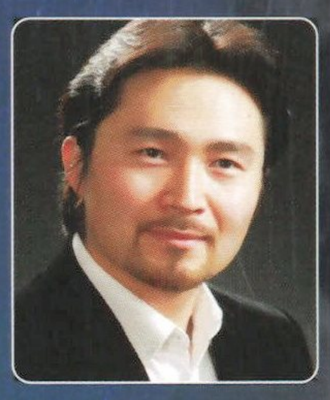
구스타프 말러 (1860~1911)
Gustav Mahler

지휘
이 동 신

해설
김 문 경



메조 소프라노
김 선 정



바리톤
강 경 원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후원 THE DAILY Focus

입 장 권 균일 10,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회원에 한함)

예매 BS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문의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www.bsculture.busan.kr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4회 정/기/연/주/회

24th Busan Symphony Orchestra Subscription Concert

지 휘_ 오 충 근

바이올린_ 에스더 김

F. Mendelssohn
Overture "A Midsummer Night's Dream" Op.61

P. Sarasate
Zigeunerweisen Op.20

P. Sarasate
Carmen Fantasy Op.25

F. Mendelssohn
Symphony No.4 "Italian" in A Major, Op.90

2009년 4월 27일(월)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_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www.bso21.com
티켓_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학생 5,000원
예매처_ ticketlink 1588-7890 www.ticketink.co.kr
문의_010-8508-8310

※ 이 공연은 2009년 부산광역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학교, 교회, 전공자 특별 우대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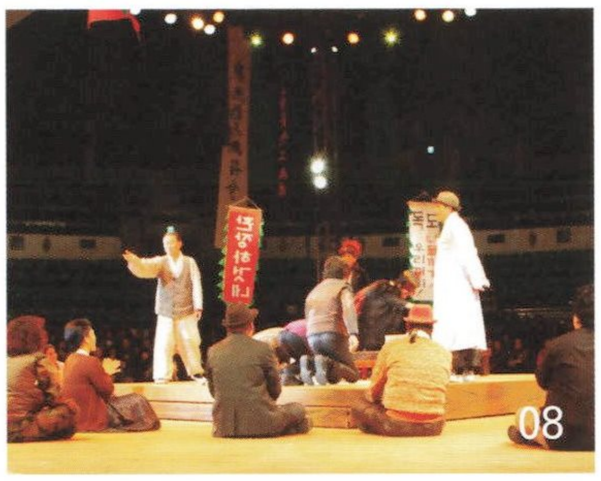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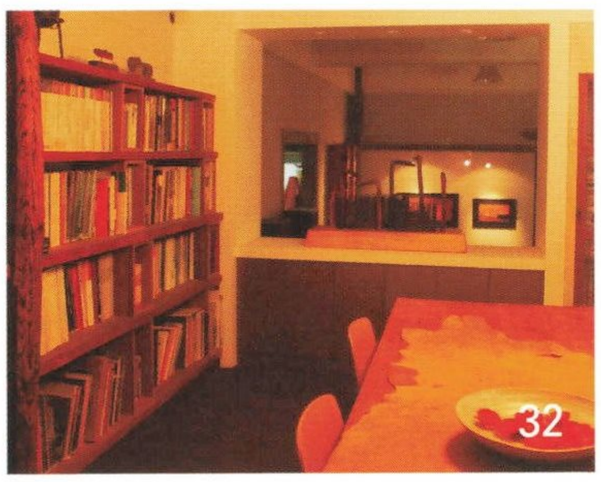
www.**busanyamaha**.com 부산야마하 피아노사 051-863-0900

예술에의 초대

2009. 4 Vol.208

Contents





08 커버스토리 _ 극장용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환장하겠네

10 프리뷰

18 반갑습니다 _ 부산무용협회 신임회장 최은희

20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오늘 같은 날, 역사 속으로… · 이재걸

24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 김홍승

26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석판에 핀 '악의 꽃' · 채경혜

28 불멸의 거장, 말러 _ 말러 교향곡에 등장하는 이상한 악기들 · 김문경

29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브라질 Ⅱ '보사노바 (Bossa Nova)' · 황윤기

30 리뷰 _ 미술 · 영화

32 그곳에 가면 _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34 프로그램 가이드

49 우리는 문화가족 _ 사진집단 일우

50 나의 애청음반 _ 박대성의 국악세계 · 권은영

51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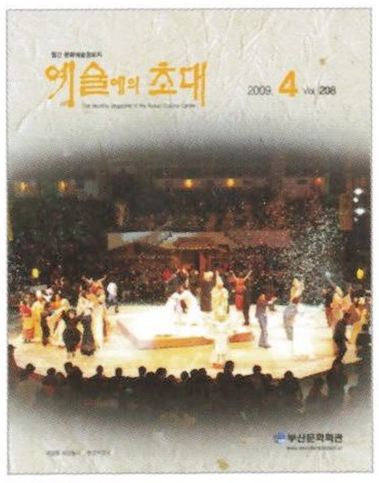
52 객석에서

53 부산문화회관 소식

54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7 100자 토크



2009. 4 Vol.208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3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라픽스

표지설명

현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신개념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 '환장하겠네' 가 4월 11일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시민들을 찾아온다.

2009. 4 APRIL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3/29 중	2009 부산연극제 축하공연-극단 골목길 '너무 놀라지 마라' 15:00, 18:00 3만원 · 2만원 · 1만원/공간소극장(611-8518)	3/30	3/31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부산연극제작소 동녁 '밴드래기 아기' 19:30 균일 1만원/부산연극제작소 동녁(751-0858)
05	06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바문사 '자갈치 자갈치' 19:30 균일 1만원/극단 바문사(242-8198)	07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바문사 '자갈치 자갈치' 16:30, 19:30 균일 1만원/극단 바문사(242-8198)
12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맥 '내 마음의 풍경' 19:30 균일 1만원/극단 맥(625-2117)	13 대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해피콘서트-한중일 30인회 기념음악회 19:30 초대/부산광역시 국제협력과(888-3855)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맥 '내 마음의 풍경' 16:30, 19:30 균일 1만원/극단 맥(625-2117)	14 대	4월 유U; 콘서트 '가야금과 떠나는 추억여행' 11:00 균일 1만 5천원/국제신문(500-5222) 중	독일가곡연구회 제 34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현식(011-566-4172)
19 대	제 78회 부산, 영남 무용예술제 09:00 (사)중앙무용문화연구원(02-866-8880, 011-284-8880) 중	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은정(017-842-6688)	20	21
26 대	김정원과 친구들 17:00 6만 6천원 · 5만 5천원 · 4만 4천원 · 3만 3천원 스톰프뮤직(02-2658-3546)	27 대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 24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0-4918) 중	2009 부산성악아카데미 '독일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2만원 · 1만원/부산성악아카데미(010-7767-4390)	28 중	부산시립합창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창작오페라음악극 '윤동주' 14:00,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5)

전시실

▶ **제1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작 전시회** – 대 · 중전시실
4월 8일(수)–4월 11일(토)
문의 : 최연성(868-5236, 011-864-3698)

▶ **덤빛전** – 중전시실
4월 14일(화)–4월 19일(일)
문의 : 박현선(612-2036, 010-8769-0025)

▶ **제 6회 부산 서예전람회** – 대 · 중전시실
4월 25일(토)–4월 28일(화)
문의 : 조정섭(756-8858, 016-849-6211)

▶ **동재 황대옥 서전** – 중전시실
4월 30일(목)–5월 10일(일)
문의 : 황대옥(752-1384, 016-564-7083)

국제회의장

▶ **제 15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시상식**
4월 11일(토) 14:00
문의 : 최연성(011-864-3698)

▶ **영성영어세미나**
4월 23일(목) 10:00
문의 : 글로벌뉴리더연구소(011-339-6267)

▶ **제 6회 부산 서예전람회 시상식**
4월 25일(토) 14:00
문의 : 조정섭(016-849-621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3월과 4월에는 소극장 공사관계로 토요상설무대는 쉽니다.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1 중	**02** 대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꼬하니' 19:30 2만원 ·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03** 대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꼬하니' 19:30 2만원 ·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에저또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19:30 균일 1만원/극단 에저또(852-9161)	**04** 대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꼬하니' 16:00 2만원 · 1만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단 에저또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16:30, 19:30 균일 1만원/극단 에저또(852-9161)
08	**09**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연구집단 시나위 '대숲에는 말(言)이 산다' 19:30 균일 1만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10** 중 2009 부산연극제 경연작-극연구집단 시나위 '대숲에는 말(言)이 산다' 16:30, 19:30 균일 1만원/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11** 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극장용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환장하겠네' 15:00, 19:00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5 대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뉴프라임오케스트라(816-1104) 중 피아노로 쓰는 아름다운 선율 19:30 초대/아르떼(010-3038-7191)	**16** 대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김인홍(010-4596-7795)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31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관현악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17**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8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18** 대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 중 피아니스트 임소영 귀국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임소영(010-5128-3190)
22	**23** 중 김서원 피아노 귀국 독주회 19:30 초대/부산문화(633-8990) 김서원(010-8967-8022)	**24** 대 부산극동방송 개국 1주년 기념 부산극동방송 여성코랄 창단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극동방송(759-6000) 중 사물놀이 '청' 정기공연 '새봄-가무악의 만남' 19:00 사물놀이 청(634-6183)	**25** 대 부산CBS 창립 50주년 기념 성가 대합창제 19:00 무료/부산CBS(636-0050) 중 김은샘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김은샘(010-4757-4063)
29 중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웰빙콘서트시리즈II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30**	**5/1** 대 2009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한국 '브레이크아웃(Break out)' 19: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19-6920)	**5/2** 대 2009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한국 '브레이크아웃(Break out)' 14:00, 18: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19-6920) 중 2009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독일 패브릭극단 '판도라 88' 14:00 1만 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19-692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09년 봄, 마당놀이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 된다!

소박한 삶이 고이 담긴 우리의 상가(喪家) 이야기!

함께해서 즐겁고, 같이 봐서 유쾌하다 !!

경제 불황으로 지친 부산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극장용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로 부산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한다.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는 지난 28년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온 MBC 마당놀이가 2008년 선보인 신개념 마당놀이이다.

풍자와 해학이 가득한 우리의 고전 작품들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해온 마당놀이는 무거움이 아닌 노래와 춤을 동원, 현대의 사회상과 절묘하게 조화시켜 표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우리만의 작품양식이다. 마당놀이는 관객들이 배우와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는 유쾌, 상쾌, 통쾌함과 함께 극 속에서 많은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는 점에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기존 마당놀이가 고전소설을 극화한 것이 주를 이룬 반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는 1996년 제작된 박철수 감독의 영화〈학생부군신위〉를 새롭게 각색, 창작 마당놀이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상, 타슈켄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원작영화의 탄탄한 시나리오에 원작영화의 감독이자 한국영화계의 장인으로 일컬어지는 박철수 감독이 직접 마당놀이 연출을 맡아 작품에 대한 신뢰를 더하고 있다. 특히 국악과 양악의 퓨전 음악을 가미한 새로운 시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색다른 음악과 춤 등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변신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는 원작의 스토리에 가장 최근의 사회적인 이슈와 사건 등을 패러디한 현실풍자를 곁들여 우리 고유의 풍자와 해학의 미덕을 발휘해 재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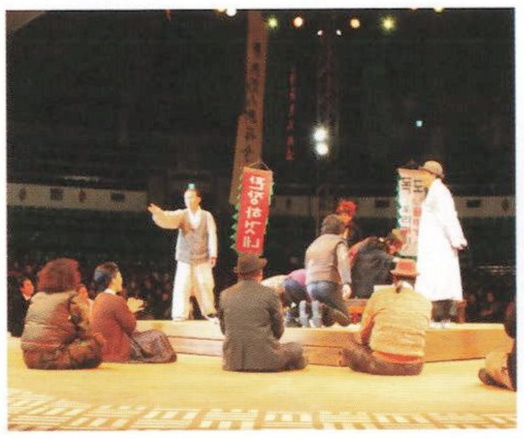
한 집안의 장례식 풍경을 통해 우리네 인생살이의 애환과 고단함, 그리고 가족간의 정(情)을 그려내고 있는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 앞에서 마당놀이의 풍자와 해학을 빌려 걸쭉한 농으로 풀어낸다. 마당놀이의 묘미인 풍자와 해학으로 대놓고 하기 힘든 말들을 배우들의 입을 통해 직사포처럼 쏘아댈 때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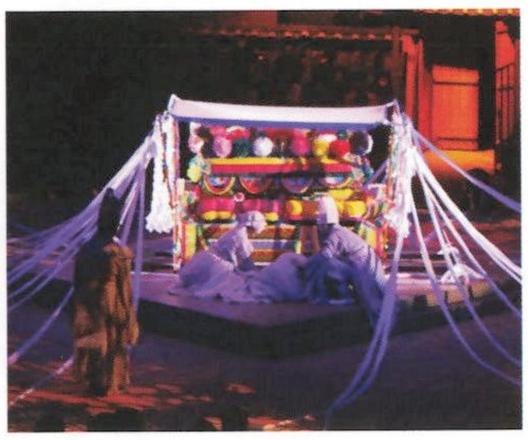
어른들에게는 답답한 세상 한바탕 웃음으로 속 풀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젊은이들에게는 잊혀가는 우리의 옛 이야기들을 쉽고 정겹게 접하며 윗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부산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출연진도 그 어느 때 보다 화려하다. 영화 〈서편제〉의 히로인이자 판소리의 대가인 오정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둘째 며느리 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다. 오정해는 지난 2004년 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총체가무악 '즐거워라 무릉도원'의 주연을 맡아 열연, 부산시민들과도 친숙한 국악인이다.

또한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뿐만 아니라 최근 연극 〈라이프 인더 시어터〉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홍경인이 셋째아들 역을, 이슬이 막내딸 역을 맡아 뛰어난 노래실력과 연기로 극적인 감동을 전해 준다.

그외에도 '맹구'라는 캐릭터로 코미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이창훈이 5일장을 진행하는 호상 역으로 오랜만에 연극무대에 나서고, 탤런트 신신애가 고모로 열연한다.





【 작품줄거리 】

어느 시골 박 노인이 갑작스런 자전거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갑작스런 부음을 전화로 전해 듣고, 사진작가인 큰아들 형민과 그의 처, 미국에 사는 셋째 아들 전도사 규민, 카페를 경영하는 바람기 많은 딸 애자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던 사위 태식 등 각지각처에 흩어져 다양하게 살고 있던 일가들이 번잡스럽게 고향으로 몰려든다.
몇 십 궤짝인지도 모르는 소주와 맥주 박스가 관처럼 쌓이며, 죽음처럼 적막했던 마을은 갑자기 오일장이 서는 시골 장터처럼 활기가 넘치고 잔칫집처럼 분주해진다. 돼지 멱따는 소리와 곡 소리가 뒤범벅인 상가. 상을 맞은 어머니는 말이 없다. 뒤늦게 도착한 미국에 사는 전도사 규민은 독경소리가 울려 퍼지던 영전 앞에서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부르기 시작하고….
한편 보험설계사를 하는 고모는 상가에서도 보험영업을 하고 아버지 속만 썩여온 막내 딸 애자는 서럽게 울기만 한다. 읍네 로타리 다방 고마담과 만취객, 국회의원까지 상가에 들이 닥치면서 상가는 한바탕 난장판이 된다.
산 사람들에게는 장례식을 만나고 먹고 마시며 세상일을 이야기 하는 삶의 연속일 뿐이고 대부분 죽음에는 무심하다. 발인전야가 되어 죽은자와 산자가 어우러져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빈 상여놀이가 슬프고도 화려하게 펼쳐진다.

관객 리뷰

두 시간 동안 재밌게 웃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성과 재미, 그리고 열정. 세가지 모두가 있는 참신한 마당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신세대들에게 권하고 싶은 공연입니다..

주제가 좀 무겁긴 하지만 요즈음 병원 영안실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았던 장례식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외갓집 마당 멍석에 누워 모깃불 냄새를 맡으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바라보는 느낌이랄까요.

-출처 www.imbc.com

부산시립합창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창작오페라음악극 '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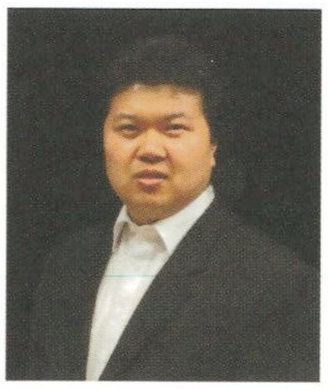
- 4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 4월 28일 화요일 오후 2:00, 7:30
-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김강규

윤동주 최춘식

윤동주 이재원

송몽규 김창돈


송몽규 김태우

지난 2월 '희망'을 메시지로 2009년을 힘차게 출발한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창작오페라음악극 '윤동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사람인 윤동주는 민족사랑과 인류평화를 실천한 민족근대사에 최대의 족적을 남긴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시인이다.

시인 윤동주 탄생 90주년을 맞아 작곡가 이용주가 작곡한 〈오페라음악극 윤동주〉는 그동안 시인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부쳐왔던 작곡가 이용주가 창작한 음악극으로, 지난 2007년 11월 서울 창동 열린극장에서 초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부산시립합창단에 의해 부산 초연될 〈오페라음악극 윤동주〉는 물질만능주의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돈과 권력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가치를 두게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미를 시인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

'창작오페라음악극'은 드라마의 일부분을 노래로 하는 오페라나 뮤지컬과는 달리 독립된 가곡들을 드라마와 함께 구성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극으로, 기존 오페라에 연극요소가 더해지고 뮤지컬 보다는 품격있는 예술가곡과 합창음악이 더해져 일반 관객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작곡자 이용주는 자신이 작곡한 가곡을 다양한 형태로 편곡하고 윤동주의 삶을 극화시켜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서시' '별헤는 밤' 등 윤동주의 주옥같은 대표작들을 가사로 한 예술가곡을 통해 민족시인 윤동주를 만날 수 있다.

작곡자 이용주는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통해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움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극단 무대감독 정순지의 연출로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무대에서 재현해 낸다. 윤동주 역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최춘식, 이재원, 윤동주의 동갑내기 외사촌형 송몽규 역에는 김창돈, 김태우가 캐스팅되어 부산 음악 애호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번공연은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해 금정문화회관과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함께 펼쳐진다.

줄거리

오페라음악극 〈윤동주〉는 '윤동주의 죽음을 알리는 서곡' 으로 시작한다.

윤동주가 태어난 북간도 명동촌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이주해 일구어낸 항일독립운동의 기지로, 그곳에서 윤동주는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항일독립운동가이자 교육사상가인 외숙 규암 김약연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며 성장한다. 1929년 13살의 나이로 윤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새 명동' 이라는 등사지 문예지를 발간하고 이 무렵 썼던 동시, 동요들을 발표한다. 윤동주는 1935년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고 1941년 연희전문 문과에서 발행한 '문우' 지에 '자화상' 을 발표한다.

1941년 송몽규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 립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한 윤동주는 그해 가을 교토 도시샤 대학 영문과로 편입해 문학과 시를 공부하며서 항일저항운동도 함께 펼쳐나간다.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송몽규와도 주기적으로 만나던 윤동주는 요시찰 인물로 일경의 감시를 받던 송몽규와 함께 독립사상범으로 체포되고 만다.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 윤동주는 형무소 안에서도 저항정신으로 시를 쓰다. 모진 고문과 생체실험 대상이 되면서 1945년 2월 16일 끝내 사망하고 만다.

윤동주의 싸늘한 시체를 인계받은 윤동주의 아버지는 일제로부터 침략당한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들이 생체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다. 가족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윤동주의 장례가 치러지고 그의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주옥 같은 그의 시들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오른다.

주요배역

최춘식 이재원(윤동주), 김창돈 김태우(송몽규), 김나영(윤혜원), 최영수(윤동주 부), 최선희(윤동주 모), 강은태(강태식), 남순천(시즈코), 엄남이(친구 여), 구명금(친구 남), 오승중, 이연기(형사), 남기호, 조성기, 전귀만, 장은경(교회사람), 김웅태, 최난영, 권정은, 김미경, 최성규(행인), 이정철(시낭송)

지난 2007년 11월 29일~30일에 공연되었던 '윤동주' 는 신선한 의욕이 넘쳤고, 꽤 완성도 높은 작품을 탄생시켰다. 우리 오페라, 뮤지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꿰뚫은 방향제시가 될 만하다. 오페라와 뮤지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음악' 이란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 탁계석(음악평론가) –

단체로 온 중고생의 무리가 공연에 집중되지 못한다. 따분할 것이라 생각했으리라…. 공연 10여분이 지난 후 그들은 다른 관객들과 같이 모두 음악에, 윤동주에 빠져들고 있었다. 난 이런 일이 1시간 이상의 창작곡 연주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기적이라 평가한다.

– 박준석(컨서트 플래너) –

음악극 '윤동주' 는 순도 100%의 음악적 쾌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순간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순간순간이 극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났고, 정서적인 울림이 대단히 컸습니다.

– 신동일(작곡마당 대표) –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8회 정기연주회

●4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피아노 유영욱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한국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천재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작품 23,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등 차이코프스키의 주요 곡들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은 어린시절 작곡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면서 음악신동으로 먼저 주목받았다. 미국 줄리어드스쿨 음악학교와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유영욱은 지난 1998년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클래식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7년에는 독일 본에서 열린 제 2회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우승 당시 '베토벤이 피아노를 친다면 유영욱처럼 연주했을 것이다'는 심사위원의 극찬과 함께 '베토벤의 환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무대에 새로운 '젊은 거장'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다.

유영욱은 그동안 뉴욕 국제 키보드 페스티발, 독일 베토벤 페스티발 등 해외 유수의 페스티발에 초청되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첫 곡으로 연주되는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는 그의 3대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인형' 중 가장 유명한 곡으로, 중세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발레의 줄거리에 감미로우면서도 화려한 선율이 잘 어우러지는 작품이다. 연주회용 모음곡은 전 4막 36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만을 발췌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그중에서도 더욱 사랑받고 있는 정경Ⅰ, 왈츠, 정경Ⅱ, 스페인무곡을 들려준다.

협연자 유영욱이 들려줄 '피아노협주곡 제 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은 오늘날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널리 연주되는 곡으로, 러시아적 정서 속에 슬프도록 아름답고 로맨틱한 선율과 색채적인 관현악법이 매력을 한껏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들려줄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은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7편의 교향곡 중 가장 풍부한 변화와 열정을 보여주는 곡으로, 작곡가 특유의 어둡고 아름다운 선율과 교묘한 구성, 절묘한 관현악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9 교향악축제'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십시오.)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6회 정기연주회

동행-특수악기와의 만남

●4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박 호 성

서커스와 국악관현악의 만남으로 신춘무대를 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4월 북한의 개량피리인 대피리와 소금, 태평소 등 평소 자주 만날 수 없는 우리 악기의 매력을 전해준다.

동래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평소 거리가 멀어 부산문화회관을 자주 찾지 못했던 동래구, 금정구 지역 주민들에게 신명넘치는 국악선율로 새봄의 흥취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순자(대피리), 한영길(소금), 진형준(태평소), 박성희, 정선희(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이 협연자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첫 무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순자가 들려주는 정세용 곡 대피리를 위한 관현악 '새날의 기쁨'으로 연다. 민족의 희망찬 앞날을 염원하는 '새날의 기쁨'은 대피리만의 독특한 저음이 잘 살아있는 곡이다. 대피리는 북한의 개량피리인 소피리, 저피리, 대피리 중 가장 크기가 큰 악기로, 음색이 부드럽고 풍부해 여러 형식의 곡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소금을 위한 관현악 '파미르 수상곡'은 중국의 작곡가 조재군이 작곡한 곡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해발 500m가 넘는 파미르 고원의 광활한 초원과 사막, 실원의 장대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원래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악기인 '디즈'의 협연곡이었으나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한영길의 협연으로 우리악기인 소금 연주로 들려준다.

태평소를 위한 관현악 '호적풍류 협주곡'은 사물반주로 불려지는 태평소 시나위를 기악반주에 맞춰 우리음악의 특징인 주고받는 형식으로 최경만 명인이 재구성, 편곡한 작품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진형준의 태평소가락으로 경쾌하면서도 시원시원한 경기제 특유의 연주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선희, 박성희가 협연하는 '창과 관현악'에서는 흥겨운 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들려준다.

마지막 곡인 박범훈 곡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은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변화에 관현악의 풍성한 가락이 결합한 신명넘치는 곡으로, 전학수, 이주헌, 신문범, 최오성으로 구성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의 열정넘치는 무대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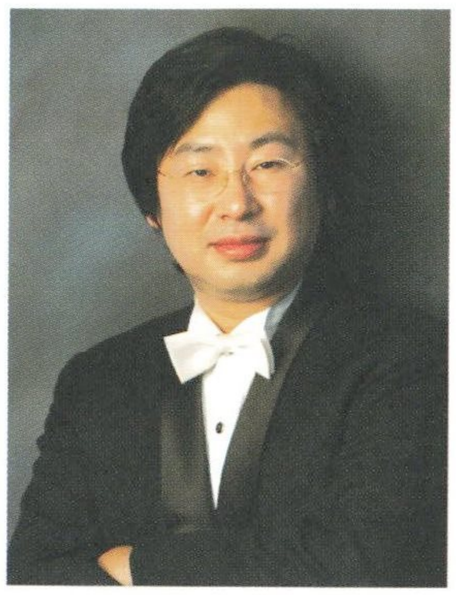
▶ **관람료** _ 초대

▶ **문 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콘서트 II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이동신

해설 김문경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하는 2009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가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웰빙콘서트 2009년 테마는 '오페라와 말러'. 지난 2월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해설로 진행된 '벨칸토 오페라의 세계'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말러 스페셜리스트 김문경의 해설로 말러 음악여행을 떠난다.

20세기 선구자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말러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10년과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11년을 맞아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을 받고 있는 작곡가 말러의 음악세계를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리톤 강경원이 협연한다.

이번 무대에서 해설과 진행을 맡은 국내 최고의 말러 권위자 김문경은 말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들의 찬사와 함께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와 저술활동을 통해 음악칼럼니스트로서의 지평을 넓혀온 김문경은 지난해 클래식음반 전문매장 풍월당에서 음악강의를 개설해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시리즈를 마쳤으며, 현재 '내 사랑 슈베르트' '심포니 네비게이터' 강의를 진행중에 있다.

협연자 김선정은 함부르크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체코 프라하극장에서 '피가로의 결혼'으로 오페라에 데뷔한 후 독일 Bremen, Kassel, Flensburg 오페라극장 및 Hamburg allee theater, 미국 플로리다극장 등 수많은 오페라 무대에 서왔다. 2000년 윤이상 오페라 '심청'으로 국내 데뷔무대를 가진 김선정은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오텔로' '리골레토' '카르멘', 국립오페라단 '보이첵' '예프게니 오네긴' '살로메'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김선정은 현재 한국 페스티발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또 다른 협연자 강경원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디플롬, 최고연주자과정, 마이스터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작센주 선정 장학생, 드레스덴 국립음대 수업조교를 역임했다. 안토닌 드보르작, 니코 도스탈, 로버트 슈톨츠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강경원은 오페라 '라보엠' '팔리아치' '라 트라비아타' '엘리야' 등 다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08 김해국제음악제, 서울 장천아트홀 행복음악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 강경원과 김선정은 말러의 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아침의 초원을 거닐며' '내 마음에 있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 '지상에서의 삶' 등을 들려준다. 이밖에도 말러의 '교향곡 제4번 사장조' 4악장과 드보르작의 '슬라브무곡' 제 2번, 슈트라우스의 '안넨 폴카 작품 117'를 연주한다.

공연에 앞서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말러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의 에피소드를 그린 콩트로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 **관람료** _ 균일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조선통신사 보러가자

부산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2009 조선통신사 축제

400여년전 통신사의 평화교류를 21세기에 되살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 '2009 조선통신사 축제'가 5월 1일(금)부터 5월 3일(일)까지 3일간 용두산 공원을 비롯한 부산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8회를 맞는 조선통신사축제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주제로 조선통신사의 평화교류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조선통신사는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200여년간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공식 외교사절이다. 평화와 선린우호를 위한 국가사절로 한·일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한 조선통신사는 당시 일본 번(藩)의 향응을 받으며 6개월에서 1여년에 걸쳐 일본열도를 종관하였고, 그 규모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가진 정사, 부사, 종사관 3인을 포함하여 300~500인에 이르렀다.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집행위원장 강남주)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체험의 폭을 한층 넓혀 조선통신사 행렬재현과 평화의 북소리에 참여할 부산시민 450여명을 모집, 부산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역사축제를 펼친다.

주요일정

일상의 거리가 축제로… 거리 퍼포먼스

5월 3일(일) 13:00 ~ 14:30 광복로 일원

조선통신사 퍼레이드에 참가 할 한·일 예술단의 맛보기 게릴라 공연과 행렬도, 퍼즐체험, 마임공연, 삐에로 공연, 조선통신사 보물찾아라 행사가 광복로 일원 3곳에서 개최된다. 주말 차 없는 거리로 새로 태어난 광복로에서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한일 우정의 하모니를 즐겨요

2009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5월 3일(일) 15:00 ~ 17:00 용두산공원 ~ 광복로

용두산을 출발하여 광복로 입구까지 펼쳐지는 퍼레이드는 선도행렬, 조선통신사 행렬, 어서오세요 일본행렬, 다이내믹 부산행렬, 2009 평화의 북소리로 꾸며진다. 조선통신사 행렬은 조선후기 12차례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의 당당한 모습을 1711년 통신사 행렬도를 바탕으로 재현하여, 역사 속의 통신사를 21세기에 되살린다.

부산시립무용단, 춤패 배김새, 남산놀이마당, 정신혜 무용단, 후쿠오카 시(후쿠오카 현)의 이마주쿠 타이코, 기타큐슈 시(후쿠오카 현)의 요사코이 춤, 오무라 시(나가사키 현)의 구로마루 오도리, 세라초(히로시마 현)의 아와 오도리, 시모노세키 시(야마구치 현)의 헤이케 오도리, 하마다 시(시마네 현)의 타바야시 등 국내외 정상급 춤과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평화의 북소리는 소리로 열정의 에너지를 뿜어낸다.

향기 가득한 오월의 저녁

조선통신사의 밤

5월 3일(일) 18:00 ~ 20:00 용두산공원 특설무대

퍼레이드에 참가한 한·일 정상급 예술단의 감동적인 모습을 무대 공연으로 즐길 수 있다.

그 외 조선통신사의 학술연구 발표가 5월 1일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되며, 험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 일행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던 '해신제'가 5월 2일(토) 오후 7시 동구 영가대 조선통신사 광장(자성대 동문 부근)에서 개최된다.

▶ 문 의 :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816-3371, www.joseontongsinsa.org)

제 6회 부산국제연극제

신체극과 마임_가장 솔직한 언어, 몸 (Body Never Tells a Lie!)

부산국제연극제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5월 1일(금)-5월 10일(일) ●부산 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등

국내 유일의 '컨셉연극제'로 주목받고 있는 2009 부산국제연극제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과 금정문화회관, 경성대학교, 용천지랄소극장 등 부산시내 공연장과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음악극 스페셜'에 이어 올해는 '신체극과 마임(Physical Theatre & Mime)'이라는 컨셉으로 독일, 러시아,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 한국 등 9개국 24개 작품을 초청, 다양한 신체극과 마임의 세계를 펼친다.

신체극은 보다 은유적인 연극을 창작하려는 배우의 신체적 상태에 바탕을 두고 연극을 창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고 극중 줄거리를 따라가며 극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는 것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즐거움이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신체극과 마임이라는 컨셉에 맞게 언어적 제약없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작품들이 부산 국제 연극제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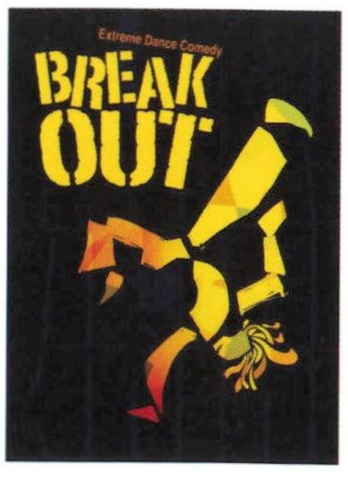
올해 개막작으로는 영국 에던버러를 놀라게 한 화제의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한국)이, 폐막작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체극이라는 찬사를 받은 〈잊을 수 없는 기억 Saudade, terres d'eau〉(프랑스)이 선정되어 연극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연극제는 개·폐막작과 함께 메인 컨셉인 '신체극과 마임'으로 이루어진 〈BIPAF MAIN〉, 컨셉과 형식 및 장르에 제한 없이 탁월한 기량을 갖춘 국·내외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는 〈BIPAF OPEN〉로 구성된다. 〈BIPAF OPEN〉에서는 가족극, 우수극, 프린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극장 스테이지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소개된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축제를 만들기 위해 공연 외에 시민과 관객이 함께 즐기는 'BIPAF Together - 쇼케이스', 'BIPAF ZONE', '관객과의 대화', '코스튬 플레이', 일반인 대상 창작연극체험 프로그램 '10분 연극제', 세계 유명 마임아티스트 남궁호(한국), 그렉 골드스톤(미국), 바르토미 옵스탑축(폴란드)과 함께 '콩쥐팥쥐'를 재해석 하는 〈BIPAF 워크샵〉, 임도완(연출가, 한국), 김남석(부경대학교 교수, 한국), 볼프강 호프만(패브릭 포츠담 극단 예술감독, 독일)이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 '신체극과 마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 참여행사 및 연극 전문가들을 위한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평일 문화혜택을 누리기 힘든 직장인들이 위하여 금요일 저녁 9:30 야간 공연이 새롭게 시도된다.

제6회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



〈 개막작 〉

한국 세븐센스 '브레이크 아웃'

5월 1일(금)~2일(토) 금 19:00, 토 14:00, 1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자유를 향한 어설픈 죄수들의 좌충우돌 탈옥기인 '브레이크 아웃'은 2007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를 흥분시킨 화제작이다.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75분)

· 예술감독/백원길

〈 폐막작 〉

프랑스 극단 도자듀(The company Dos á Deux) '잊을 수 없는 기억'

5월 9일(토)~10일(일) 토요일 19:30, 일요일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화려한 여행과 같은 작품.(전체관람가, 상영시간 80분)

· 극작, 감독, 안무, 무대설치/아르투 리베로(Artur Ribeiro), 안드레 쿠르티(André Curti)

제6회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

■ 문의 :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802-8003, http://bipaf.org)

BIPAF 메인

독일 패브릭 극단(Fabrik Company) '판도라88'
5월 2일(토)~3일(일) 토요일 14:00, 일요일 1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두 명의 남자배우들이 펼치는 대담한 드라마와 숨 막힐 듯 강렬한 댄스(2003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토탈 씨어터 어워드 프린지 최고상, 헤럴드 엔젤상 수상작)

한국 대구시립극단 '공씨의 헤어 살롱'
5월 2일(토)~3일(일) 토요일 18:00, 일요일 1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마임, 슬랩스틱 그리고 한국적 로맨스가 결합된 넌버벌 코미디 가족극. (2008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

러시아 아케 엔지니어링 극단 '화이트 캐빈'
5월 2일(토)~3일(일) 토요일 14:00, 일요일 1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의 연출, 기괴하고 괴팍스러운 이미지들의 홍수 (2003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프린지 퍼스트'와 '토탈 씨어터 어워드' 수상작)

한국 '고재경 마임 콘서트'
5월 2일(토)~3일(일) 1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검정색 무대와 막, 단순한 조명, 텅 빈 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채워나가는, 관객도 공연자가 되는 ~ing형 공연

폴란드/미국 골드스톤 마임 극단 'Louder Than Worlds'
5월 2일(토)~4일(월) 토-일요일 18:00, 월요일 19: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마치 하나의 뇌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몸짓
마임 공연의 대가 그렉 골드스톤과 바르토미 오스탑이 펼치는 코미디 마임

한국 '최규호의 클라운 마임'
5월 5일(화)~6일(수) 화요일 14:00, 18:00, 수요일 19:3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한국 클라운 마임의 개척자, 탄탄한 마임연기와 타고난 무대매너로 관객을 이끄는 마임이스트 최규호가 마술, 아크로바틱, 저글링, 풍선을 이용한 마임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보따리.

한국 트러스트 무용단 '데칼로그'
5월 7일(목)~8일(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검증받은 트러스트무용단의 우수 레퍼토리.
국내 최초 성서의 십계를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한 춤.

한국 극단 세진 '하루'
5월 7일(목)~9일(토)목-금요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용천지랄소극장
흥미진진한 일상들 속 여섯 개의 어떤 날들, 여섯 개의 에피소드-현대인의 하루, 술 먹는 날, 강아지, 버스정류장, 사진사, 어느 광대의 하루가 펼쳐진다.

한국 호모루덴스컴퍼니 '개구리들의 댄스 파티'
5월 8일(금)~9일(토) 금요일 19:30, 토요일 16:30,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놀이하는 사람들이 펼치는 해설이 있는 마임으로 해설자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듯 흘러가는 마임 레퍼토리 〈피말리용〉과 〈오늘 같은 날〉이 펼쳐진다.

한국 사다리움직임연구소 '보이첵'
5월 8일(금)~9일(토) 19: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양 최초 세계 최고의 예술극장 오로라 노바 극장 입성한 화제작,(헤럴드 엔젤 어워드, 토털 씨어터 네트워크 피지컬씨어터 수상, 영국 BBC 방송 선정 2007년 에딘버러 프린지 Top 10)

이탈리아 극단 Jack & Joe '오피스'
5.8(금)~10(일) 금요일 21:30, 토요일 19:30/일요일 1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오피스에서 펼쳐지는 잭(Jack)과 죠(Joe)의 환상적인 세계

BIPAF오픈 (◉ 가족극 ◉ 우수극 ◉ 소극장 스테이지)

◉ 한국 극단 Art-3 Theatre 하녀들
5월 2일(토)~4일(월) 토-일요일 18:00/월요일 19:30 용천지랄소극장
쟝쥬네 원작을 재구성, 연출한 작품으로 극중에서는 마담을 제외한 끌레르와 솔랑주만이 등장한다.

◉ 일본 극단 가제노코 큐슈 '놀이는 즐겁다'
5월 3일(일)~5일(화) 일요일 14:00, 17:00, 월요일 10:30, 19:30, 화요일 14:00, 17:00 경성대멀티미디어 소강당
생활속 즐거운 놀이의 세계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지난 20년간 일본은 물론 한국, 홍콩, 인도, 캐나다 등 각국의 언어로 공연, 세계 4만명 이상 관람한 화제작.

◉ 한국 제 27회 부산연극제 대상작
5월 5(화)~6(수) 화요일 18:00, 수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한국 예술무대 산 '달래이야기 '
5월 5일(화)~6일(수) 화요일 14:00, 수요일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마치 무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관절인형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전쟁의 고통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움직임과 인형과 오브제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 스페인 얄야나 극단 '파가니니'
5월 5일(화)~6일(수) 화요일 14:00, 18:00, 수요일 19: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클래식 음악과 바이올린의 대가 아라 말리키안의 명연주와 얄야나의 슬랩스틱 코미디가 만난 작품. 심각하고 엄숙하기만 한 클래식 콘서트의 틀을 깨고, 재치 있는 유머와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음악 메들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 한국 현대인형극회 '조용석 줄인형 콘서트'
5월 8일(금)~9일(토) 19:30 경성대 콘서트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인형들의 콘서트.

◉ 한국 극단 아름다운 세상 '애기똥풀'
5월 8일(금)~9일(토) 금요일 19:30, 토요일 16: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모님에게는 아름다운 유년의 추억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점차 잊혀가는 우리 것들의 정겨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애기똥풀이야기.

◉ 한국 (주)가을엔터테인먼트 '그 남자, 그 여자'
5월 1일(금)~10일(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19:00, 일, 공휴일 15:00, 18:00(월요일 휴관) 초콜릿 팩토리
'이소라의 음악도시'에 소개된 '그남자, 그여자'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출간한 동명의 에세이집 그남자 그여자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영상처럼 펼쳐 보여준다.

◉ 한국 극단 사계 '굿모닝 대디'
5월 1(금)~10(일) 평일 20:00, 토-일요일 17:00 공간소극장
여러 인간 군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회적 부랑아가 될 수밖에 없는 비틀어진 세상사를 해학으로 털어내고자 한다.

◉ 한국 부두극단 '에쿠우스'
5월 1일(금)~10일(일) 평일 20:00, 토-일요일 17:00 액터스 소극장
세계가 오히려 인간의 원초적 자연성과 활력을 잃어버린 죽은 세계, 즉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역설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있는 신성과 야성을 끄집어낸다.

◉ 한국 극단 마루 '철부지들'
5월 1일(금)~5일(화) 평일 19:30, 토요일 16;00,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 6번 출구 소극장
철부지들의 사랑이 쓰디쓴 아픔을 겪으며 성숙해 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고 특이하게 그린 작품.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이벤트

부산국제연극제 참가작품 중 관람하고 싶은 공연에 대한 사연을 부산문화회관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단 소극장 스테이지 작품은 제외됩니다.)

25명을 선정, 부산국제연극제 초대권 2매를 드립니다.

○ **이벤트 마감 : 4월 15일**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607-6077~8)**

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몸의 언어

부산무용협회 신임회장 최은희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가 제 16대 부산무용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009년 부산무용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부산무용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산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인정받던 춤의 고장인 만큼 부산 춤의 명성을 찾고 대중들과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83년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최은희 신임회장은 1984년부터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부산무용계를 든든하게 지켜왔다.

1982년 20대의 열정 넘치는 춤꾼으로 제 4회 대한민국무용제 대상을 수상하며 우리무용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최은희 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로 우리 춤의 전승, 보급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경성대학교 제자들을 주축으로 우리 춤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8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국무용전공자모임인 춤패 배김새를 결성했고, 그동안 한국 전통춤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화제작을 발표해왔다.

2000년에는 울산시립무용단 초대안무자로 취임하면서 지역무용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다양한 창작무대를 열어왔다. 2005년 제2회 델픽 세계문화올림픽 최우수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최은희 회장은 지난해 '2007 춤 비평가상 특별상'과 '한국무용연구회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대학 무용학과의 개편 방안, 영남 춤의 활성화 방안, 배김 허튼춤의 모형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병행하며 우리 춤의 영역을 넓혀왔다.

"부산의 무용계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만큼 지역 무용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한편으로는 교육적인 부분을 연구발굴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신임회장은 취임과 함께 부산지역의 명성 재건과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팔을 걷어 올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 부산무용계를 이끌어 왔던 원로무용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문화예술프로젝트와 문화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미래의 무용인, 애호층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연계해 무용교사 연수와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은희 회장은 1월 취임 이후 4월부터 펼쳐질 부산무용협회의 주요행사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왔다. 그동안 부산무용제, 부산예술제, 청소년예술제 등 기존의 행사들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행사들로 보완해나간다는 생각이다.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회무용부분에도 영역을 확대해 진정한 청소년들의 축제로 재편하고 7월로 예정된 부산무용제는 원로축하무대를 비롯해 다양한 축하공연을 기획, 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용예술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유능한 젊은 춤꾼들의 등용문인 '새물결작가전'은 경연 형식을 도입해 무대의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생각이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문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해외문화교류를 빼놓을 수 없다. 동서베를린 민속무용축제, 호주 시드니 문화축제, 북경 국제대학페스티발, 인도네시아 국제무용페스티발, 대마도 아리랑축제 등 해외무대에서 우리 춤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반응을 직접 경험한 최은희 회장은 평소 부산이라는 도시 명성에 걸맞는 대표 창작 작품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다.

여건이 된다면 부산무용협회 전 회원들의 열정을 모아 부산을 대표하는 대작을 만들고 싶다는 최은희 회장은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제작된 무용극 '허황후'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 틈틈이 재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

"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몸의 언어인 만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입니다. 춤의 목적은 카타르시스입니다. 여러 가지 상설공연과 강습회를 만들어 부산시민들이 보다 쉽게 무용 작품을 만나고 부산시민들이 춤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연장에서 성원을 보내준 부산시민들과 힘든 여건 속에서 부산의 무용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지역 무용인들의 바람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은희 회장. 그는 부산의 생명력과 열정을 아름다운 춤 언어로 담아내는 다양한 작업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

파리 5구에 위치한 도심 내 가장 큰 공원, 오른쪽에 프랑스 상원건물이 보인다.

오늘 같은 날, 역사 속으로…

이 재 걸 _ 프랑스 통신원. 소르본 대학교 예술사 전공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있다.
L' homme est n libre, et partout il est dans les fers

장-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1712-1778)

유난히 우울했던 겨울이 갔다.

첫 눈의 낭만과 새해의 벅찬 기대도 웅크려들 만큼 지난 겨울은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

전 세계가 맹목적으로 따랐던 고도의 자본주의 구조는 몇 가지 난제에 너무나 쉽게 그 모순의 사이클을 발각 당했고, 그 여파는 사회 곳곳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세계는 가히 아노미(Anomie)*1 를 경험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뿐 만이 아닌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보다 더 건전하고 도덕적이며 공리적인 비전(vision)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전 세계가 앞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극복해내리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약자들만의 희생이 강요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잔뜩 찌푸린 파리의 하늘 때문인지 활기에 넘치던 파리지앵들의 표정에서도 이번 경제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늘 음악이 흐르던 뤽상부르(Luxembourg)공원은 뜸한 인적에 적막감마저 감돈다. 흔치 않은 광경이다.

이번 원고사진에 여유로운 파리지앵들의 산책모습이나 젊은이들의 낭만적인 프렌치 키스신을 담아 한국에 봄날의 기운을 전해주려 했던 나의 계획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버렸다.

그렇게 30분도 채 못 앉아있고 찬바람에 떠밀리듯 일어나 옮기는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팡테옹(Panthon)쪽으로 향한다. 예전 학부시절 빽빽한 수업일정에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 혹은 몇 달을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어이없는 성적으로 되돌아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을 때 종종 들르던 곳이 바로 이 곳 팡테옹이었다. 그 때와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오후인 것은 마찬가지라 하겠다.

루이 15세가 건립한 생트꾼비에브(Sainte-Genevive) 교회당이 프랑스 혁명에 공헌한 위인들을 안치할 용도로 바뀌면서 그리스의 만신전과 같은 의미인 지금의 팡테옹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 후, 이 곳엔 주로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문인들이 묻히게 되었고, 이들의 장식은 국가의 이름으로 헌정되는 프랑스의 중요한 행사로 치러진다.

2002년 12월에 거행된 최근 이장식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뒤마(Alexandre Dumas ,1802-1870)로, 우리에게는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철가면〉, 〈여왕마고〉 등으로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랑스의 대문호이다. 이 날 이장식은 주요 방송사의 생중계로 방송되었는데 그 곳엔 당시 공화국 수장이었던 시

▲ Pendule dmonstrant la rotation de la Terre, 1851년 레옹 푸코(Lon Foucault)에 의해 설치된 67미터 길이의 추

라크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한 귀빈들과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하려는 수많은 프랑스 국민들로 파리 중심가는 성황을 이루었다. 1998년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이후 가장 많은 군중의 물결이었다. 각 시대의 정신은 그렇게 현재와 소통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부러운 장면이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팡테옹은 그래서 시간을 아우르는 힘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와 현재 모두 하나의 긍정적인 조화로 엮여 있고 서로 관계한다. 차분히 미래를 기다리는 지혜까지도 담고 있는 이 곳의 분위기가 일종의 경외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비단 나만의 경험만은 아닐 것이다.

건물의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우선 웅장한 팡테옹의 돔(Dome)*2에 걸려있는 이유 모를 이상한 구슬 추를 만나게 된다. 사실 이 것은 설치된 그 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구의 자축이 기울어져 있고 자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추인 것이다.

당시 파리에서 가장 높이 메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곳에 설치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류에 대한 낙관적 신뢰로 가득했던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열정을 늘 현재형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연 같지 않은 우연인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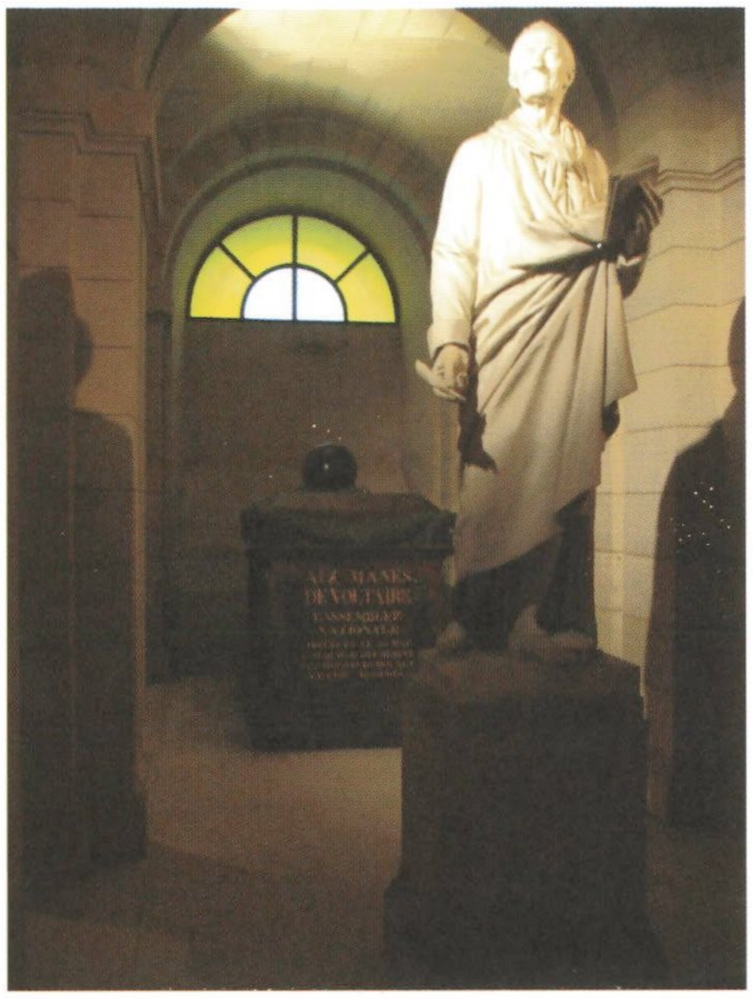
추를 지나 보이는 지하 묘당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응축하기라도 한 듯 낯선 비장함마저 들게 한다.

지하 묘당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위인은 일생을 종교적 맹신과 전제정치에 저항하여 진보의 이상을 구현하려 했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Voltaire, 1694~1778)이다.

7~8년 전쯤 처음으로 이 계단을 내려와 '급하게' 마주쳐버린 볼테르 앞에서 당혹스럽도록 반가웠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때만큼은 아니지만 〈노트르담의 꼽추〉, 〈레 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1802~1885), 〈좁은 문〉의 앙드레 지드(1869~1951), 〈제르미날〉의 에밀 졸라(1840~1903) 그리고 〈인간의 조건〉의 앙드레 말로(1901~1976) 등의 위대한 문인들과의 조우는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한다.

이 말 없는 석관들을 지나치며 문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그들의 단어 하나하나에 깃든 영원한 생명력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되뇌어 본다.

그들의 불의에 맞선 저항의식과 인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의 드높은 목소리를 등 뒤로 하고 오랜만에 둘러본 팡테옹에서의 작은 시간여행을 마치고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프랑스 위인들의 상징인 이곳을 나선다.



▲ 볼테르의 묘

▲ 빅토르 위고, 알렉산드르 뒤마, 에밀 졸라의 묘실

현실의 분주함과 사람들의 건강한 에너지, 격렬한 자동차 소음 그리고 바게트빵 부스러기에 모여든 도시의 비둘기 떼…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안도감과 흥분이 어우러진 채 나는 퇴근길 파리지앵들 사이로 나선다.

변덕스러운 날씨다. 팡테옹을 들어설 때의 잿빛 하늘이 청명한 햇살로 물들었다. 한 시간 후의 날씨도 예상하지 못한 나에게 내일은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오늘은 그 질문마저 친근하게 느껴진다.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삶 안에서 루소의 단순하리만큼 명쾌한 한 줄의 명언이 또 한 번 의미심장하게 도시의 한복판을 뜨겁게 관통한다.

▲ 팡테옹(Panthon). 소르본대학으로 대표되는 파리 라탱구역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Jacques-Germain Soufflot에 의해 설계되고 1790년에 완공된 절제미와 웅장함을 동시에 갖춘 신고전주의양식의 건축이다.

*1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Durkheim)의 개념으로 사회질서의 붕괴와 가치 혼란에 따른 일종의 공황상태.

*2 로마시대 이후의 반구 형태 천정구조 양식으로 파리 팡테옹의 그것은 10톤의 무게와 83미터의 높이를 자랑한다.

로시니G.A.Rossini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

김 홍 승 _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지난 회에 이어 이번엔 모차르트(W.A.Mozart)의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의 전편인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에 대하여 다뤄볼까 싶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총 2막, 역시나 오페라 부파이다. 1816년 2월 20일 로마의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보마르셰(P.A.Baumarchais)가 쓴 3부작 중 제1작인데 모차르트는 제 2작의 원작을 그대로 쓴 반면 로시니는 대담하게 자르고 붙여가며 이 오페라를 작곡했다 한다. 그는 '게으름뱅이 작곡가'란 별명이 있는데 이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포함한 1막의 반 정도가 다른 오페라에도 쓰였던 곡들이기 때문이다. 로시니는 그런 식으로 이 오페라를 매우 단기간에 작곡했다 한다. 별명이 왜 붙었는지 이해가 갈만하지 않은가?

작품으로 들어가서 등장인물을 소개하면,

- **피가로(Figaro)** : 세빌리아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나는 이 거리의 만물박사(Largo al factotum)'란 아리아만 들어봐도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는 현재 바르톨로 집안의 일도 맡아하고 있다. 상당히 유쾌하고 비상한 인물이다.
- **알마비바 백작(Il Conte Almaviva)** : 프라도에서 로지나를 보고 반해 세빌리아까지 쫓아와서 매일 그녀의 방 발코니 밑을 찾아와 노래하고 있다.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로지나에게 평민인척 이름도 '린도로'라고 바꾸고 그녀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한다. 피가로가 그 집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가로와 짜고 바르톨로에게서 로지나를 빼돌려 결혼하려 한다.
- **로지나(Rosina)** : 고아이지만 부자인 아름답고 젊은 소녀이다. 그는 바로톨로의 후견을 받고 있으며 매일 그에게 감시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 찾아와 자신의 발코니 밑에서 노래하는 젊은 남자가 누군지 궁금해 하며, 호감을 갖고 있다.
- **바르톨로(Bartolo)** : 의사이자 로지나의 후견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로지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로지나에게 상당히 집착하는데 방의 편지지가 몇 개인지 잉크가 얼마나 남아있는 지까지도 알고 있다. 필자 개인의 생각은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재미는 이 바르톨로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피가로, 로지나, 백작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듯 속아 넘어가는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 낼 수 있는지가 달렸기 때문이다.
- **바질리오(Basilio)** : 음악가. 로지나의 음악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바르톨로의 소식통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쪽의 편이든 드는 상당히 박쥐같은 사람이다.
- **피오렐로(Fiorello)** : 알마비바 백작의 시종.
- **암브로지오(Ambrogio)** : 바르톨로의 시종.
- **베르타(Berta)** : 바르톨로의 하녀.

피가로의 결혼보다 상당히 출연진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11명의 조 · 주역에서 8명으로 줄었으며 내용 역시나 〈피가로의 결혼〉은 주 내용 이외에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주 내용에 집중되어서 이해는 더 쉽게 된다.

자! 그렇다면 도데체 백작은 어찌하여 로지나와의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1막 돈 많은 고아인 로지나는 나이 많은 후견인인 바르톨로의 집에서 보살핌이라고 하기엔 좀 과한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바로톨로의 그 감시엔 '그녀는 나와 결혼을 할 것 이다'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로지나는 요즘 매일 이른 아침 자신의 발코니 밑에서 노래하는 청년이 누군지 궁금하다. 그 청년은 알마비바 백작인데, 프라도에서 로지나를 보고 반해 이 곳 세빌리아까지 쫓아왔다. 하지만 로지나의 반응이 없어 시무룩해 하고 있는 그의 앞에 이 거리의 이발사인 피가로가 나타난다. 백작은 피가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때마침 바르톨로를 피해 잠깐 나온 로지나는 발코니 밑으로 편지를 떨어뜨리고 바르톨로가 나와 무슨 종이냐고 묻자 '무익한 걱정('L'Inutile precauzione)' 이라는 악보라며 위기를 넘긴다. 그 편지는 피가로의 민첩함으로 백작의 손에 오게 된다. 편지를 읽은 백작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름을 '린도르' 라 하면서 그녀를 향한 노래를 부른다.

피가로는 대가를 후하게 쳐주겠다는 백작의 말에 솔깃하여 한 가지 꾀를 내어준다. 그것은 술 취한 병사로 변장해 연대장의 숙박허가증을 보이며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때, 로지나의 음악선생인 바질리오가 들어와 백작이 세빌리아에 있다는 소문을 바르톨로에게 전하고, 집으로 들어온 피가로는 몰래 로지나에게 자기 사촌동생 린도로가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고 상대방이 로지나 임을 알려준다.

그때 마침 병사로 변장한 백작이 나타나고 술에 취한 척하며 숙박허가증을 내밀지만 바르톨로는 자신은 숙박면제증이 있다며 맞선다. 이러다 소란은 점점 커져 군대가 들이닥치고, 백작을 체포하려 하지만 그가 한 장의 서류를 지휘관에게 보여주자 지휘관은 군대를 철수시켜버리고 모두들 황당해하며 1막은 끝이 난다.

2막 바르톨로의 집에 음악교사로 변장한 백작이 '나는 돈 알론조 입니다' 하면서 선생님인 돈 바질리오가 병에 걸려 대신 레슨하러 왔다 한다. 하지만 의심 많은 바르톨로가 그를 믿지 않자 백작은 아침에 로지나가 준 편지를 보여주며 '백작은 부인이 있고 로지나를 데리고 놀려고 하는 것뿐이라 한다' 며 거짓말한다.

그러자 의심이 풀린 바르톨로는 로지나를 데려오고 로지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나 모른 척 레슨에 들어간다. 때마침 이발하러온 피가로는 둘이 데이트할 수 있게끔 바르톨로에게 수염을 깎아 주겠다며 거품을 발라버린다. 둘은 노래로 도망갈 계획을 알려주고 피가로는 수건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로지나방 열쇠를 빼돌린다. 하지만 눈치 빠른 바르톨로가 둘을 눈치 채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내쫓는다. 다들 나가고 난 후 바르톨로는 로지나에게 돈 알론조에게 받은 편지를 보여주며 '니가 속은거다. 저 사람은 너를 데리고 가서 알마비바 백작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고 말해주고 그말을 믿은 로지나는 절망하며 바르톨로에게 결혼을 허락한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 되고 피가로와 백작은 몰래 들어와 로지나를 만나나 로지나는 쌀쌀맞게 대한다. 그 이유를 들은 백작은 '그 알마비바 백작이 바로 나요!' 라고 밝히고 때마침 들어온 공증인은 둘의 결혼 서약을 한다. 백작은 공증인과 함께 온 바질리오에게 반지를 주며 입을 막고 나중에 들어온 바르톨로가 백작에게 이름을 묻자 자신이 알마비바 백작임을 밝히면서 바르톨로는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어렵게 결혼한 알마비바 백작이 제2작에서는 로지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다니 여자의 마음만 갈대 같은 게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갈대 같은가 보다.

이 재미있는 오페라가 초연엔 실패를 거두었다. 이유는 그의 안티 팬들 때문인데, 같은 이름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34년전 조반니 파이지엘로(G.Paisiello)라는 작곡가가 작곡했었기 때문이다. 어린 작곡가가 대든다고 생각해서였는지 그의 안티 팬들은 공연 내내 야유하고 휘파람 불었고 2막엔 무대에 쥐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화가 난 로시니는 집에 가버렸고 걱정된 주인공이 로시니의 집을 방문하니 로시니는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로시니다운 행동인 것이다.

기회가 되면 〈피가로의 결혼〉과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를 이어서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다.

석판에 핀 '악의 꽃' - 롭스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술취한 멋쟁이, 칼라 인그레이빙, 사후판화

20세기 초 한국은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일제의 강점 등으로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겪었다.

미술 또한 일본을 통한 간접경로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서구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형식과 외형적인 측면에서 서구적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서구의 외향을 모방한 모던 걸, 모던 보이 이미지들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한국문학과 예술 전반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19세기 중엽 유럽미술에 나타나는 팜므 파탈의 여성이미지와 무관하지 않다.

팜므 파탈(femme fatale)이란 '운명의 여인' 또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여인' 이란 뜻으로 1912년 극작가 버나드 쇼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소위 세기말로 불리는 19세기말의 상징주의를 비롯한 데카당 문학과 미술에서 유행했으며, 당시 예술 전반에서 즐겨 사용된 대표적인 모티브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유럽의 퇴폐적인 사회분위기와 여성의 역할변화, 여성운동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이 그 배경이 되었는데 특히 오스카 와일드와 뭉크, 클림트, 롭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작가 중 특히 벨기에 작가 팰리시엥 롭스(Félicien Rops, 1833~1898)는 이러한 팜므 파탈의 이미지로 인간과 사회를 풍자한 대표적인 판화가다. 우리나라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풍자화, 캐리커처 등에서 나타나는 그의 뛰어난 감각과 재치는 같은 시대의 뭉크보다 더 시대를 초월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에게 벨기에는 와플, 초콜렛, 백포도주로 맛을 낸 홍합요리 등 달콤한 식문화의 나라, 〈땡땡의 모험〉을 그린 에르제(Hergé, 1907~1983)가 태어난 유럽 만화의 본산지로 알려져 있다. 소년기자 땡땡과 애견 밀루가 전 세계를 모험하는 만화 〈땡땡의 모험〉은 1929년부터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해서 총 24권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50개 언어로 60개국에서 2억만부 이상 팔린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유럽만화의 고전이다. 2008년 파리 미술품 경매에서 〈미국에 간 땡땡〉의 표지그림(수채화, 1932)이 12억 원에 팔리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으며, 올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에르제의 세계적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국민들은 판화가 롭스에 대해 무엇보다 더 자부심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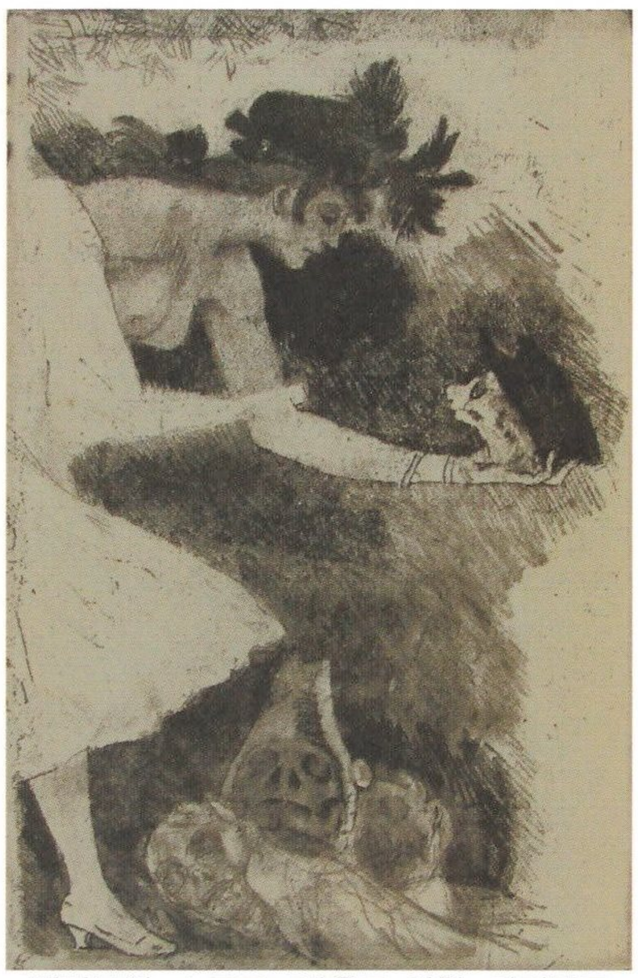
나무르 출생의 이 괴짜 판화가 롭스는 꽤 자유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호탕한 성격으로 브뤼셀대학시절에는 학교수업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삽화 그리는 일을 즐겼으며, 유산을 탕진한 이후에는 신문에 만화나 삽화를 그려 생계를 잇기도 했다. 1859년부터 이듬해까지 풍자주간지 〈윌렝슈피겔〉의 삽화를 판화로 그렸고, 1865년 석판화 〈압생트를 마시는 여인〉으로 벨기에 미술계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현실풍자도구로서의 만화와 삽화의 힘은 대단했는데 특히 롭스의 뛰어난 묘사력은 에칭과 석판화 기술로 더욱 빛을 발했다.

파리에서 만난 출판업자 풀레 말레시와의 인연을 통해 당대 많은 문호들과 우정을 나누었는데 특히 보들레르, 공쿠르 형제 등과의 교류로 악마주의, 상징주의 같은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 그가 그렸던 삽화들 중 보들레르의 〈악의 꽃-유실물〉 권두 삽화는 보들레르가 롭스의 고향 벨기에 나무르를 방문하여 제작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1876년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파리에서 가장 비싼 일러스트 작가로 인정받았으며, 말라르메, 바르베이 도르비, 조세핀 펠라당 등의 작품삽화를 그렸고, 1885년 브뤼셀에서 혁명적인 예술그룹 <레방(20인회)>에도 참가하였다.

이렇게 롭스는 당시 모든 문학과 예술이 열광하는 팜므 파탈적 요소를 결집시켜 자신의 판화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주제의 선택,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법의 접목, 특히 다루기 힘든 드라이포인트와 소프트 그라운드에칭의 활용 등 판화기법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숙련된 판화기술만큼 펜, 연필, 과슈, 수채화 등의 작품세계는 더욱 완숙된 경지를 보여주게 된다.

창부정치가, 1896, 칼라 인그레이빙


햄릿부인, 소프트그라운드 에칭, 아쿼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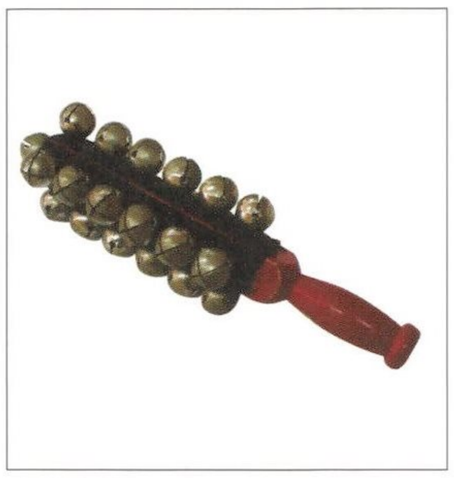
그는 에칭 600여점, 석판화 180여점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눈을 가린 채 돼지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창녀를 그린 〈창부정치가〉, 칼을 숨긴 채 높이 쳐든 손바닥에 남자를 올려놓고 조롱하는 여자를 그린 〈꼭두각시를 든 부인〉 등 대표작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팜므 파탈의 파괴력을 부각시켰다. 공쿠르 형제의 평처럼 "여성의 냉혹한 눈짓, 숨기지도 위장하지도 않고 온몸으로 명백하게 드러내는 남성에 대한 적개심, 롭스는 현대 여성의 잔인한 측면을 묘사하는 데 정말 뛰어났다."

풀레 말라시는 이러한 롭스의 드로잉과 창의력을 극찬하였으며, 보들레르는 벨기에에서 건너온 유일하고 진실한 예술가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벨기에 국적이면서도 프랑스 최고훈장인 '레종 도뇌르상' 을 받았으며, 보들레르의 미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유를 끝없이 갈망하는 여행자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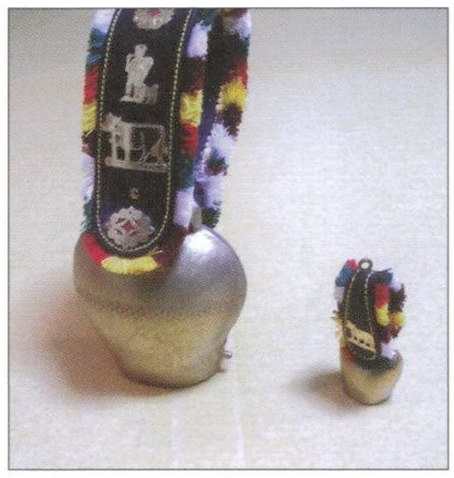
파격적인 그의 작품은 유럽에서조차 편견에 갇혀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영화, TV,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서 팜므 파탈이 등장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러 교향곡에 등장하는 이상한 악기들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슬레이 벨



소방울

홀츠 클라퍼

말러의 교향곡을 감상하다보면 별 이상한 악기와 마주치게 된다. 슬레이 벨, 소방울, 루테, 홀츠 클라퍼, 나무 해머 등 이름부터 낯선 악기가 한둘이 아니다.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에는 이들 특수악기가 다수 사용되어 "타악기의 병기고가 통째로 소집되었다", "이제부터 타악기 교수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시니컬한 비평이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각 악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살펴보자. 슬레이 벨은 여러 개의 썰매 방울을 모은 것으로, 악기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유아용품 딸랑이 같은 소리를 내는 이 악기는 일찍이 모차르트 '게르만 댄스 K.605 No.3'에 등장한 바 있으며, 말러 교향곡에서는 4번 도입부에 사용되고 있다. 민속무용에나 사용되던 악기를 과감히 교향곡에 사용했지만 "교향곡에 장난치냐"식의 악평을 들을 뿐이었다.

소방울은 최근 화제가 된 영화 '워낭소리'에 등장하는 바로 그 워낭이다. 여러 크기가 다른 소방울을 불규칙하게 흔들어 마치 소떼가 지나가는 듯한 음향을 만든다. 교향곡 6번에서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영웅의 절대고독을 상징하며 교향곡 7번에는 전원적인 풍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루테'라는 악기는 싸리 빗자루처럼 생긴 나무채로, 베이스 드럼의 테두리나 나무판을 쳐서 특유의 파삭파삭한 음향을 얻는다. 말러의 가곡 '소년의 마술 뿔피리' 중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 라든지 교향곡 2번 3악장에서 이 악기의 활약을 엿볼 수 있다. 루테의 음색은 마치 생활소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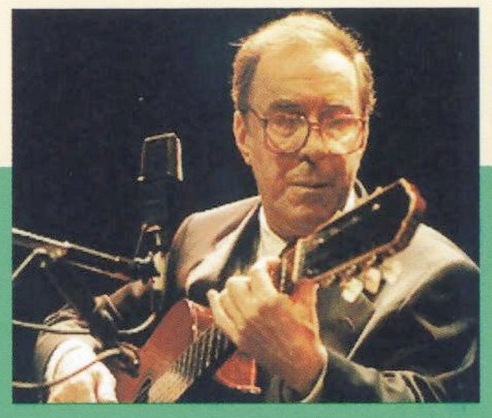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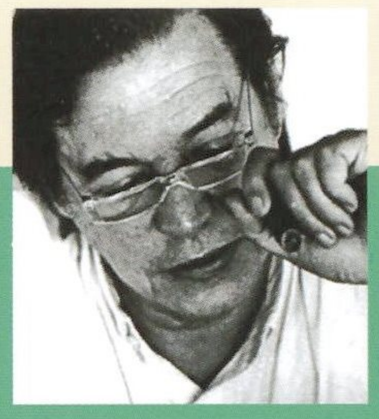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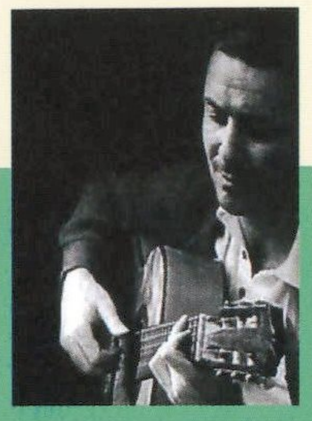
홀츠 클라퍼는 나무를 뜻하는 독일어 '홀츠(Holz)'와 박수치기를 의미하는 '클라퍼(Klapper)'가 결합된 말이다. 나무판 두 장을 겹쳐 한쪽에 경첩을 달아 박수치듯이 연주하는 악기이다. 말러는 이 악기를 교향곡 5번 3악장에만 사용했는데, 특유의 날카로면서도 건조한 음향으로 해골이 덜거덕거리는 듯 기괴한 분위기를 풍긴다.

나무 해머는 악기를 넘어선 하나의 '괴물'이라 하겠다. 책상 정도 크기의 커다란 나무 상자를 떡메처럼 생긴 나무 해머로 타격하는 악기(?)로, 교향곡 6번 피날레에 사용되어 영웅을 쓰러뜨리는 '운명의 타격'이자 곡의 '심볼'이 되어버렸다. 모든 악기의 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인 음량으로 인해 모든 녹음 엔지니어의 골치를 썩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말러가 이렇듯 특이한 악기를 작품에 자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말러가 추구한 음색은 이전의 정통 독일음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음향을 위해 독특한 악기의 기용은 불가피했다. 다년간 오페라 지휘를 통해 쌓은 경험 또한 이러한 관현악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말러가 창조한 혁신적인 음향은 미래의 전위음악 작곡가인 베르크와 베베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말러의 화성법이나 멜로디 작법이 19세기를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음색만큼은 이미 20세기 전위음악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셈이다.

브라질 Ⅱ
- 보사노바의 선구자들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월드 뮤직'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 일부 재즈팬들을 비롯한 많은 음악팬들이 보사노바를 재즈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다. 백인 테너 색소폰 주자 스탄 게츠(Stan Getz)를 비롯한 미국 재즈 뮤지션들은 보사노바 리듬을 사용하여 놀라운 히트를 기록했고, '보사노바 재즈'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보사노바는 재즈 뮤지션들에 의해 세계 음악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특히 스탄 게츠는 보사노바의 전도사라 할 만큼 커다란 역할을 했다. 또한 그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스탄 게츠의 앨범 〈Getz/Gilberto〉에는 보사노바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안토니우 까를로쉬 조빔(Antonio Carlos Jobim)과 조앙 지우베르뚜(João Gilberto)라는 두 거목이 찬조 출연의 모양새로 가담하고 있었으니, 충분히 오해할 만 했다. 보사노바가 새로운 매력으로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선구자로 불릴만한 인물들의 노력이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무명의 신인 뮤지션이었던 조앙 지우베르뚜가 음악에 대한 독특한 감각과 고집으로 완성해낸 리듬 패턴이 바로 보사노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보사노바의 선구자로 불리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조빔이 그의 곁에 있었다. 조앙 지우베르뚜는 극단적인 개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가 보사노바 리듬을 완성해낼 때에도 며칠 동안 욕실에 틀어박혀서 기타와 씨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고집스럽고 모난 성격은 적지 않은 일화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음악적인 천재성을 인정하고 인내심 강하게 그를 지원했던 인물이 바로 조빔이었다. 보사노바의 매력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던 앨범 〈Getz/Gilberto〉 녹음 당시, 스탄 게츠와 조앙 지우베르뚜는 서로 다른 견해 차이로 내내 사이가 좋지 못했었는데, 조빔이 이 둘 사이를 조율하면서 녹음을 이끌어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쨌든 조앙 지우베르뚜의 놀라운 감각은 조빔의 곡들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나긋한 음성으로 중얼거리듯 노래하는 그의 스타일은 지금까지도 보사노바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섬세한 멜로디와 하모니로 유명한 조빔의 곡들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가들에 의해 수없이 레코딩 되어 왔다. 그의 음악은 20세기 초반 브라질 음악계의 현대적인 음악과 클래식, 재즈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와 그 뒤를 받치고 있는 탄탄한 음악적 구조는 그를 20세기 대중음악 최고의 작곡가 중의 한 명으로 지목받게 했다.

보사노바의 태동기에 조빔은 조앙 질베르뚜를 지원하며 수많은 보사노바 명곡들을 만들어 냈고, 두 사람이 선보인 새로운 음악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브라질 대중음악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적인 활약은 보사노바라는 새로운 음악이, 나아가 브라질의 음악이 세계적인 것으로 자리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되었다. 1994년 조빔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보사노바를 표방하는 어떤 장르, 어떤 아티스트의 음반을 봐도 조빔의 곡 한 두 곡 이상은 반드시 들어있을 정도로 그의 음악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오고 있다.

또 한 명의 보사노바 선구자로 시인이자 작사가였던 비니씨우쉬 지 모라이쉬(Vinicius de Moraes)를 빼놓을 수 없다. 최초의 보사노바 명곡으로 알려진 'Chega de Saudge(그리움은 이제 그만)', 'Garota de Ipanema(이파니마의 소녀)', 'Desafinado(음치)' 등을 비롯한 조빔의 수많은 명곡에 가사를 붙이며 보사노바에 시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한 인물이다. 조앙 지우베르뚜의 리듬과 조빔의 멜로디, 여기에 그의 노랫말이 더해져 보사노바 음악이 꽃을 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영화 '흑인 오르페'의 희곡을 썼던 인물이기도 한 그는 조빔과 콤비를 이루어 수많은 보사노바 명곡들을 탄생시켰으며, 이후에도 브라질의 중요한 인물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브라질 대중음악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기계' 언어 _ 정만영, 〈A. U. Ready〉展

2월 28일~3월 28일, 오픈스페이스 배

김 만 석 _ 미술평론가

정만영이 기획한 퍼포먼스 작업에는 중요한 미술사적 의미가 가로질러 간다. 핵심적으로 퍼포먼스는 '기계'에 의해 생산되는 미술의 가능성을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종언'을 고했던 단토(A. C. Danto)의 입론을 떠올리게 만든다. 굴삭기에 붙여진 붓으로 도시를 그리고 그 과정을 사운드로 담아내는 것, 그것을 사진으로 포착하는 것, 또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이 퍼포먼스에서 인간은 조작자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은 그리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굴삭기를 조작하는 주체는 분명 인간이고 그것을 그리는 것 역시 인간이지만 인간 행위는 실제로는 기어와 조작대의 상하좌우의 운동으로만 나타나며 실제적인 조작은 굴삭기에 내맡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굴삭기로 땅을 파는 행위를 보고 있을 경우에 '굴삭기가 땅을 판다'고 말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자. 말하자면, 굴삭기 '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굴삭기 '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계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해진 행위이므로 이 퍼포먼스의 주체는 '기계/굴삭기'이고 거기서 생산된 언어는 인간의 조형언어가 아니라 기계언어라는 것이다. 하여, 인간에 의한 조작 자체가 불필요해질 경우에, 기계(혹은 로봇)에 의한 예술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 더 이상 예술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담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도 모두 또 다른 '기계/미디어'라는 점에서 인간지각 능력의 한계를 '조건'으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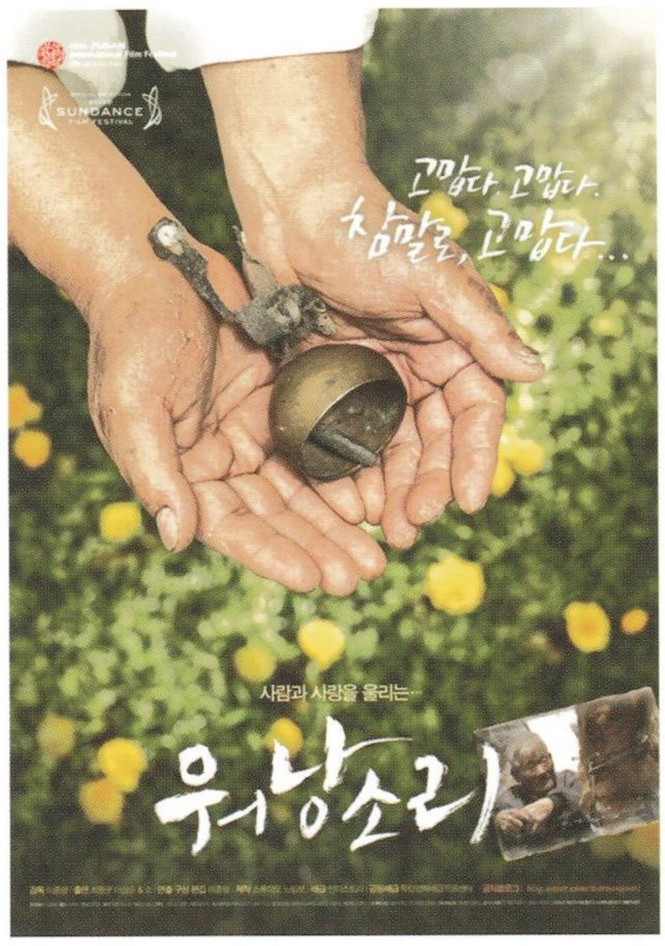
기계의 인간화가 아니라 인간의 기계화라는 관점에 이 퍼포먼스가 위치해 있다고 해야 할까? 혹은 퍼포먼스의 작가가 누구인지 물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점에 근거한다. 정만영에 의해 기획된 이 퍼포먼스는 '전시'라는 또 다른 미디어를 통해 '지속'되고 있지만 그는 벌써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으니, 작가의 두문불출과 '작가'가 불명료한 사정도 무관하다고 보기는 더 어려울 듯도 하다. 아니, 퍼포먼스 이후 '전시' 과정에서 '작가들'을 포착하기보다 관객들의 행위가 기록되고 발화되기를 더 기대하듯 전시공간에 모종의 장치를 구성하여 '호객'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관객'된 도리를 깨고 '작가'가 되라고 주문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

더군다나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시간을 기계와 미디어가 대리하여 포착하려는 것 역시 인간주체가 기계/미디어에 비한 상대적 무능력을 의미하므로 거기에서 위대한 '작가'의 아우라가 들어설 장소는 없을 지 모르겠다. 기계와 접촉한 인간지각의 '기계지각'으로의 변경! 물론 여기서의 '기계'는 MB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굴삭기 정책에서 요구되는 삽이나 불도저 따위의 그러한 기계는 아니며, 또한 기계화라는 단어에 묻어 있는 인간 '소외'나 '고독' 따위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니 오해가 없어야 하겠다. 아니, 퍼포먼스에서 확인했듯 굴삭기는 '땅만 파는' '기계'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기라도 해야 할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울림

〈워낭 소리〉의 세 가지 소리

김 희 진 _ 독립영화감독



최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워낭 소리〉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몇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목에 달아 놓아 소의 위치를 알려 주는 워낭의 소리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땅(자연)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는 소리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 가장 근원에 있었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소리, 그건 대를 이어가며 자손을 위해 봉사하는 부모님의 소리이자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함께 하며 그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소리이며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보편의 진리를 일깨워 주는 소리이다. 〈워낭 소리〉는 먼저 그 소리를 통해 우리가 잘못 보며 살아온 세상에 대해 귀를 먼저 기울여 보라고 권유한다.

두 번째 소리는 우리들 서로 간에 막혀 있던 소리의 흐름을 틔우는 소리이다. 소위 소통의 부재로 정의 되는 현대 사회의 현상 속에서 물과 욕의 지배구조로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많은 소리들에 경종을 울리는 소리이다. 인간과 소 사이에 소통되는 정과 감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소리가 〈워낭 소리〉에는 있다. 감독은 극 형식을 빌어서라도, 소위 반칙을 하더라도, 기록영화가 아닌 다른 영화로 불리더라도 전달하고자 했던 소리가 있다. 할머니의 구구절절한 한탄의 일상어가 편집을 통해 전달을 위한 구성으로 선택되었을 때 너무도 쉬운 언어로 우리 가슴을 울리는 순간, 그 소리는 소의 낮은 울음소리와 부딪히며 어떤 공명을 만들어냈다. 보기 이전에 들어보라고 제안하는 그 형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린 사실(FACT)이란 증거로 소통을 끝내버리고, 모든 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워낭 소리〉가 만들어낸 세 번째 소리는 발전과 결과에 목을 매는 사람들의 앙칼진 소리이다. 흥행이 되어 돈을 얼마 벌었느니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만 지원하겠다느니 영화의 배경을 관광지화해서 지역을 알려야 한다느니 대통령과 함께 자리한 감독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다느니 하는 등등의 숙고 없는 말들의 향연이며 그야말로 소리들이다. 작품 〈워낭 소리〉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 삶을 반추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을 만들어 준다. 언론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일차원적으로 사고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은 〈워낭 소리〉가 진심으로 반칙자로서의 멍에를 지면서 전달하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에 등을 돌리는 이들이다. 〈워낭 소리〉가 애초에 만들고 들려주려 했던 소리, 관객으로서 최초 극장에서 경험했던 그 소리를 잊고 이 세상에 어울리는, 현대라는 수식에 어울리는 소리를 양산하는 이들의 소리는 안타깝다. 버리라고 말하는 영화를 보고 채우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딱한 전형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보았다 들었다 라는 말로 증명한다. 〈워낭 소리〉가 보고 듣는 매체로서의 영화라는 숙명을 지고 느릿하게 걸어 온 것은 혹 우리의 인식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잘 보고 잘 듣기 위해 우리가 더 마음 밭을 일구어야 함을 일깨우기 위함이 아닐까.

생활 속 예술을 꿈꾸는 행복 커뮤니티 공간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다대동 무지개공단 기계2단지, 산적된 고철 덩어리와 찢어지는 금속음, 인적드문 도로에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대형트럭이 조금은 낯선 풍경을 빚어내는 삭막한 공단 지역 한켠에 '예술공장'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7년 예술 레지던스(예술가 주거공간)이던 '아트팩토리 숨'에서 출발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레지던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탄생에는 서봉리사이클링(주) 문정현 회장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1,000평이라는 공장부지를 선뜻 내준 문정현 회장의 통큰 지원으로 작가들뿐 아니라 문화시설이 전무한 척박한 사하구 지역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문화공간이 생기게 됐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3월 새롭게 개관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현재 입주작가들의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와 숙소, 그리고 200여평의 전시공간과 공방이 들어서 있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진, 오현주, 정규옥, 이재원(회화), 김진휘(설치), 변대용(조각), 김재한(무대설치미술) 씨의 작업스튜디오는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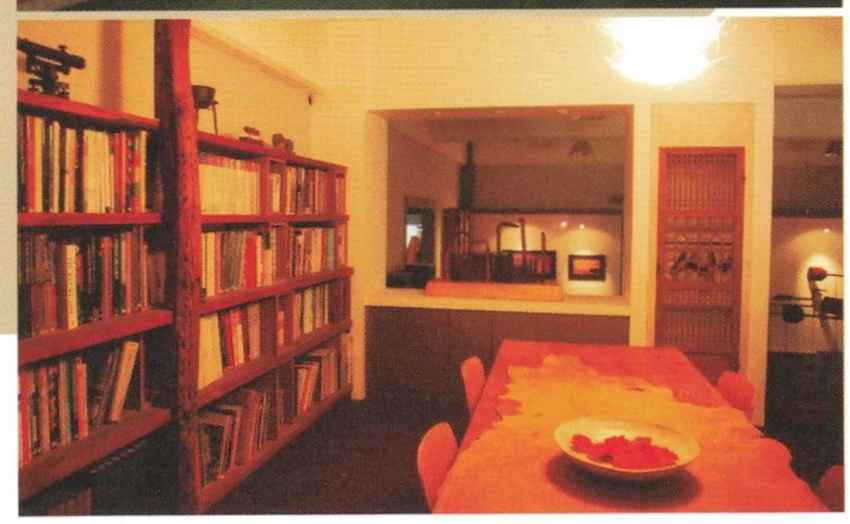
작가들의 작업공간이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방은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열린 공간이다. 이 곳에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속공예가 진영섭 씨를 비롯해 섬유공예가 김정주 씨, 목공예가 박태홍 씨의 공방이 들어서 있다. 현재 비어 있는 도자기공방은 도예가가 결정되는 대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전문가과정, 직장인 특별과정 등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과정을 마친 시민들은 평생회원으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작업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이곳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일일체험교실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 다양한 예술작업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술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와 이웃인 인근 공장의 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구상중입니다. 특히 공예분야는 기능인인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장르인만큼 야간, 주말을 이용한 직장인 강좌와 무료 특별강좌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은 작가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다"는 진영섭 운영위원장. 현재도 정기적으로 가덕도 희망원을 찾고 있다는 진영섭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술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입구에 자리잡은 200여평의 전시장에서는 현재 개관기념전 '부산미술, 다대포로 가다-2009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봄맞이 대향연展'이 열리고 있다. 부산미술계의 원로 중진작가 및 청년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개관전을 통해 척박한 공단지역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전체 입주작가 7명이 참여하는 입주작가 페스티벌이, 6월에는 재활용품을 소재로 한 '리사이클린 리젠아트' 전시를 기획, 365일 전시회가 끊이지 않는 전시회장으로 자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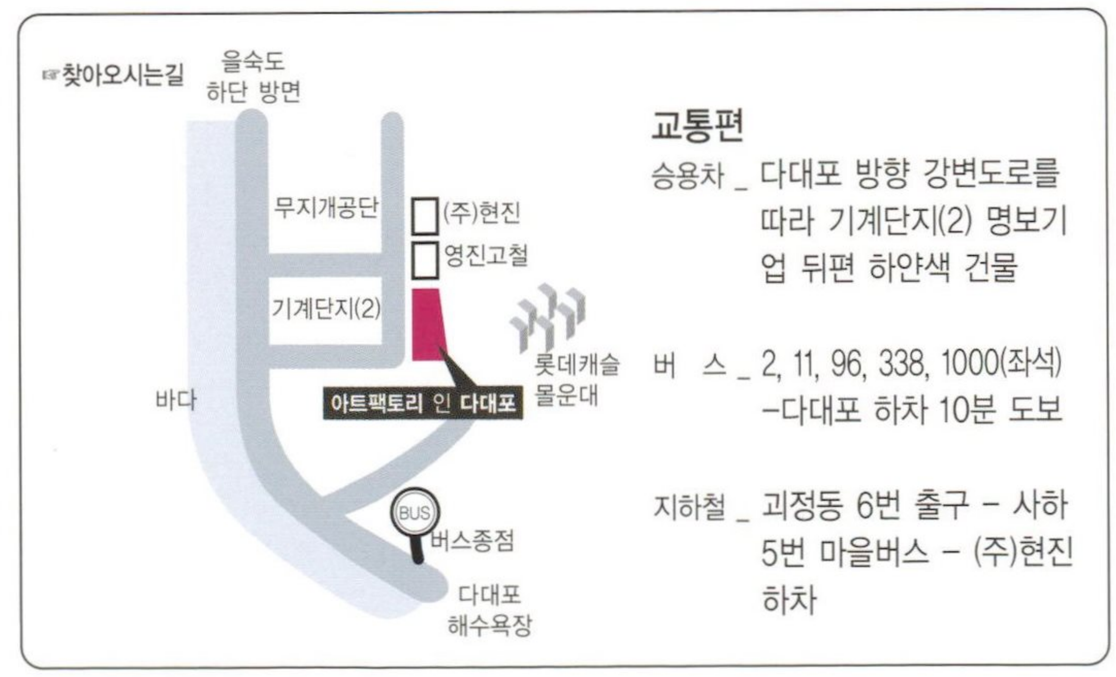


❶ 예술창작 스튜디오 / ❷ ❸ 금속공예가 진영섭 씨의 공방
❹ 현재 개관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장
❺ 목공예가 박태홍 씨의 공방 내부 / ❻ 예술창작 스튜디오 입구

김 할 계획이다.

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에서는 변변한 문화공간 하나없는 다대포 지역의 지역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2층에 자리한 휴식공간인 하늘공원에 스크린을 설치해 시민들을 위한 영상제를 개최하고, 가을 공방축제를 통해서는 공방에서 생산된 예술품을 저렴하게 판매 할 예정이다.

■문의 :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266-0646)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밴드래기 아기

3월 31일-4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한국 전통놀음 속에 녹아있는 신명의 놀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인간애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제작된 마당극 '밴드래기 아기'.

때 묻지 않은 홍순을 통해 사람과 사람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며, 조화와 통합으로서의 신명을 끌어낸다.

· 작/조인숙 · 연출/심문섭
· 출연/박지현, 정애경, 양효윤, 김현주, 강원재, 금정원, 김아람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에저또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

4월 3일-4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가슴 아픈 가족사를 무대로 옮긴 '그래도 달은 떠오른다'는 돈에 눈이 멀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훔쳐 도망간 아들 한수와 노인과 가족들의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월출리 섬을 지키는 노인의 올곧은 마음으로 해답을 찾아간다.

· 작/곽노흥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손미나, 구윤회, 신영재, 김현자, 김상호, 김지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에저또(852-9161)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갈치 자갈치

4월 6일-7일 월요일 오후 7:30,
화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자갈치에 대규모 상점을 세우려는 기업주의 야망에 온몸으로 맞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는 자갈치 할매를 통해 변화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옛 추억거리로만 남아있는 황량한 자갈치와 자갈치 아지매의 어제와 오늘을 그린 연극 '자갈치 자갈치'.

부산시립극단 제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꼬하니

4월 2일-4일 목-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대극장

1978년 초연당시 '집단창작극'의 형식으로 공연된 최초의 작품으로 화제를 모은 '무엇이 될꼬하니'를 새롭게 구성한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무엇이 될꼬하니'.

권력의 힘에 의해 짓밟히는 달래와 꺽쇠의 비극적 사랑을 통하여 우리 민초들의 잡초와 같은 삶과 이들의 한을 달래주는 '무엇이 될꼬하니'는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연출가 이윤택, 독창적 형식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연출가 채윤일, 동래야류 예능보유자인 김경화 등 최고의 스탭이 뭉쳐 부산의 소리, 부산의 몸짓, 부산의 가락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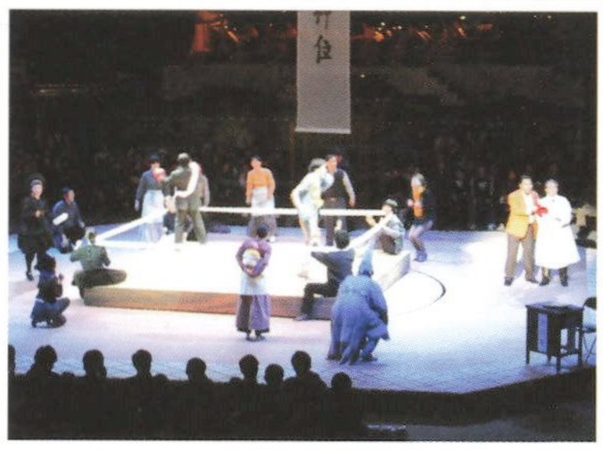
시골장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각설이, 엿장수, 점쟁이, 광대 등이 출연하여 옛 향수와 익살맞은 입담으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 연출, 대본구성/김정옥(극단 자유 예술감독, 국제극예술협회 세계본부 명예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재구성/이윤택(동국대학교 교수,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연출/채윤일(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가)
· 동래야류 연희지도/김경화(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 예능보유자), 이돈희(부산시립극단 단원)
· 악사/이선구 외 해미르예술단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장용 마당놀이
환장하겠네(원제 학생부군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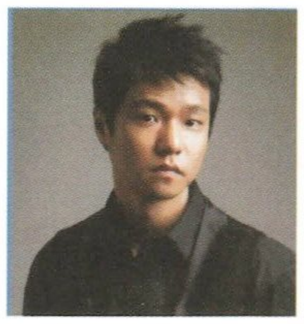
4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풍자와 해학, 눈물과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마당놀이 '환장하겠네' 부산무대.

1996년 제작된 박철수 감독의 영화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를 새롭게 각색한 마당놀이 '환장하겠네'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정해, 홍경인, 신신애, 이창훈, 장용 등 화려한 출연진, 국악과 양악의 퓨전 음악을 가미한 새로운 시도, 색다른 음악과 춤 등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변신을 통해 웃음을 전해준다.

오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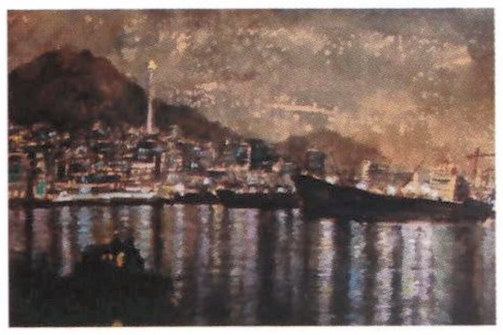

홍경인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學生府君神位)-환장하겠네'는 한 집안의 장례식 풍경을 통해 우리네 인생살이의 애환과 고단함, 그리고 가족간의 정(情)을 그려내고 있다.

출연

아버지 이봉규, 어머니 최정연, 고모 신신애, 양주사 정진각, 호상 이창훈, 큰아들 한정현, 큰며느리 오아랑, 둘째며느리 오정해, 셋째아들 홍경인, 저승사자 장용 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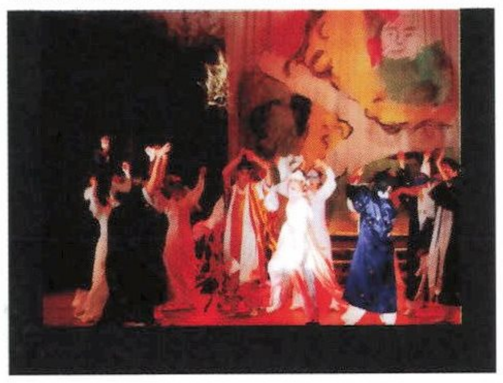


· 작/홍성모
· 연출/김세진
· 출연/최은영, 이윤희, 주홍식, 장명갑, 김혜원, 홍충민, 도정우, 윤성빈, 이은주, 조수용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242-8198)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연구집단 시나위 대숲에는 말(言)이 산다

4월 9일-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잘 알려진 신라 경문왕의 설화를 연극적인 특성을 살려 해학적으로 풀어낸 작품.

2008 제 1회 전국창작희곡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작/김문홍 · 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백길성, 백상희, 박근태, 이은영, 서성원, 김혜정, 김현진, 신원준, 반필우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연구집단 시나위(554-5244)

2009 제27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맥 내 마음의 풍경

4월 12일-13일 일요일 오후 7:30
월요일 오후 4:30, 7:30 중극장

제주도 무가 중 변소귀신의 내력 이야기를 토대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린 연극 '내 맘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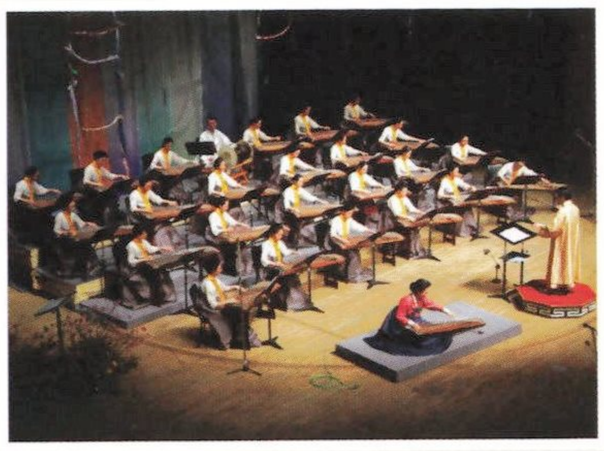
시골의 논두렁, 마을 뒷산, 당산나무 등 빛바랜 사진 속 추억여행을 떠난다.

· 작,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강숙하, 허정현, 권은하, 배기철, 유상흘, 허신애, 정정아, 배재희, 정효정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맥(625-2117)

4월 한낮의 유U; 콘서트 - 가야금과 떠나는 추억여행

4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클래식, 국악, 재즈,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온 유U; 콘서트 3주년 기념 부산가야금연주단 특별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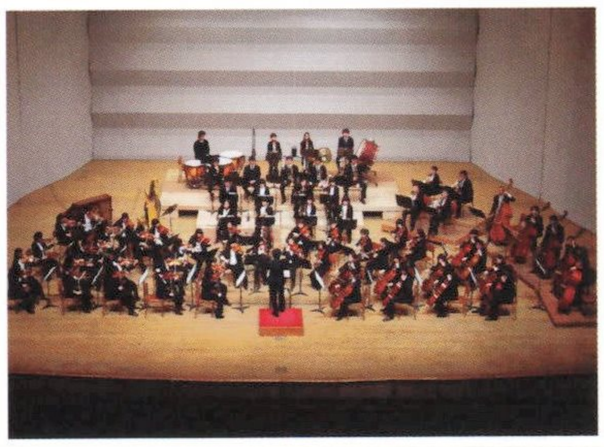
한국의 대표적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려내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의 연주로 진행될 이번 무대는 황의종 교수의 해설과 이수은 교수의 지휘, 박대성 교수의 아쟁과 부산가야금연주단 김남순 단장의 가야금 협연, 가야금 연주와 어우러진 가수 정태춘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이준호/실내악 '여행'
황의종/25현 가야금 3중주 '뱃노래', 우륵의 춤
박대성류 아쟁 산조
박범훈/사랑의 춤
이수은(편곡)/아바 메들리(Mamma Mia/The Winner takes it All/Dancing Queen)
백규진(편곡)/촛불,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등 수곡
· 지휘/이수은 · 해설/황의종(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 아쟁/박대성(부산대학교 국악학과 출강) · 특별출연/정태춘

■ 관람료 균일 15,000원 (국제신문 구독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뉴프라임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 힘이 넘치는 웅장한 사운드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오케스트라의 10번째 정기연주회.

뉴프라임오케스트라는 2006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부산바다축제 열린음악회, 울산UBS방송국 개국 1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MBC 주최 신년음악회, 제 1회 부산항 축제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시리즈II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클래식의 저변확대에도 힘써온 뉴프라임오케스트라는 지난 2007년 베트남 하노이 국립오페라극장에서 '한국, 베트남 수교 15주년 기념음악회'를 가지면서 해외 문화교류에도 힘써오고 있다.

프로그램
리스트/교향시 제 3번 전주곡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 5번 '터키풍'
브람스/교향곡 제 4번 마단조 작품 98
· 지휘/임준오(상임지휘자, 러시아 마그니타 글링카 국립음악원 교수)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뉴프라임오케스트라(816-1104, 010-5158-3983)

독일가곡연구회 제 34회 정기연주회

4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87년, 독일어권에서 수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들로 창단된 독일가곡연구회는 현재 신라대학교 김미성 교수를 중심으로 36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을 통해 독일가곡을 연구, 발표 하고 있다.

프로그램

F. J.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브람스/선율처럼 나를 스쳐 지나가다
R.스트라우스/내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등 수곡

출연

김명규(합창지휘), 김미성, 황정원, 김혜정, 정서영, 김현주(이상 소프라노), 김현식, 김지호, 우원석(이상 테너), 허종영, 김종화(이상 바리톤), 김일석(베이스), 김남숙, 박미은, 박혜선, 박필은, 곽윤희, 김성희, 공소현, 임효진(이상 피아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현식(011-566-4172)

피아노로 쓰는 아름다운 선율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선혜와 제자들로 결성된 여음회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드뷔시/영상 1집
브람스/클라비어스튜케 작품 118
라흐마니노프/러시안 랩소디
이기녕/Funky Town 등
· 연주/박선혜, 서숙지, 안진숙, 최은실, 정연희, 김경표
· 찬조출연/테너 김화정 · 반주/이소영

■ 관람료 초대
■ 문 의 아르떼(010-3038-7191)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제 8회 정기연주회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 유일의 색스폰 전문 오케스트라인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는 2002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31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관현악의 밤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동신

막심 멜니코프

김신영

드뷔시와 라벨의 작품을 통해 프랑스 근대음악의 흐름을 되짚어 보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09년 첫 정기연주회 '프랑스 관현악의 밤'.

루간스크 필하모닉,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모스크바 심포니, 모스크바 필하모니 수석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으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호른주자 막심 멜니코프와 오스트리아 Innsbruck 음대 오케스트라, 일본 가와이사 초청 연주, 대구광역시 젊은 우수 연주자 기획 연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피아니스트 김신영이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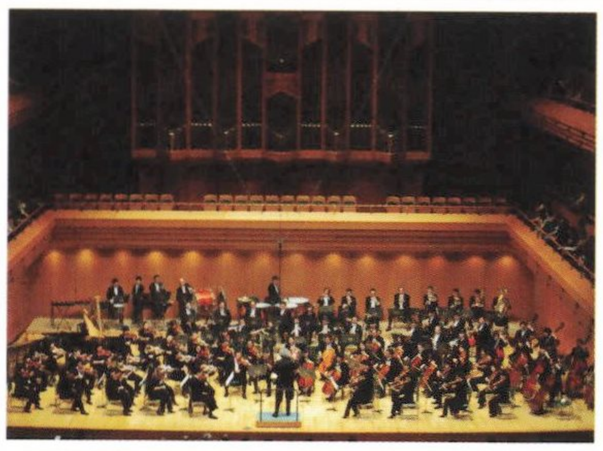
프로그램

드뷔시/작은 모음곡
쇼에크/호른 협주곡 작품 65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가장조 작품 488
라벨/어미거위 모음곡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막심 멜니코프(호른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김신영(피아노)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8회 정기연주회

4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세계로 떠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8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한국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천재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 피아노협주곡 제1번 작품 23,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등 차이코프스키의 주요 곡들을 들려준다.

유영욱은 지난 2007년 독일 본에서 열린 제 2회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베토벤의 환생'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세계무대에 '젊은 거장'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9 교향악축제'에서 21일 같은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 중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내림나단조 작품 23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수석지휘자)
· 협연/유영욱(피아니스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프로그램

민요(김희조 편곡)/방아타령

한국가요(최완규 편곡)/이문세 모음곡

한국가요(김하균 편곡)/조용필 모음곡 등 수곡

· 지휘/이수영

· 특별출연/나윤호(피아노)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인홍(010-4596-7795)

피아니스트 임소영 귀국 독주회

4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신라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라히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지난 1월 귀국한 피아니스트 임소영 귀국 독주회.

임소영은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합창단 음악코치,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오페라과 음악코치를 역임했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마단조 BWV 830

하이든/클라비어소나타 다단조 Hob XVI:20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임소영(010-5128-3190)

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 제 10회 정기연주회

4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2000년 부산아마추어 스트링스챔버오케스트라로 출발한 부산아카데믹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 뮤직포럼연구회 초청연주회, 장애인엑스포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39번, 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모리코네/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등 수곡

· 지휘/김용문

· 협연/최한슬(바이올린), 남수인(첼로), 최영준(첼로)

■ 관람료 초대

■ 문 의 장은정(017-842-6688)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6회 정기연주회

4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합창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악가, 사업가, 교사, 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혼성민간합창단 부산하모니합창단의 제 6회 정기연주회.

예술성과 재미를 살려 합창음악을 재해석해온 부산하모니합창단은 2008 부산국제합창제 혼성 클래식부문 동상,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동상 등을 수상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테너 김태우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호

프로그램

예술합창/즐거움(현대 마드리갈, L.S.Spevacek), 달빛 비치는 밤에(M.Lauridsen), 금빛 나는 (E.Whitacre), 아베 마리아(A.Bruckner)

한국창작합창/아리랑(첸이 편곡), 산(김소월 시, 박진영 곡), 평화를 주소서(Dona nobis pacem, 이현철)

사랑의 테마(백현주 편곡)/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가 만일, 그대 고운 내 사랑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윤지영

· 특별출연/김태우(테너,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성호(바이올린, 모스크바 차이콥스키음악원 재학)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 016-593-1651)

2009 김정원과 친구들

4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섬세하고 풍부한 터치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역량있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한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김정원과 친구들' 2009년 무대.

지난 2006년 대중문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클래식을 좀 더 편안하게 알리기 위해 시작한 '김정원과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친숙한 클래식곡과 격조높은 대중음악가들의 앙상블로 3년 연속 전석매진을 기록하며 클래식공연의 새바람을 몰고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연주음악의 장을 새롭게 연 감성피아니스트 이루마와 탄탄한 연주력과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국내 최고의 첼리스트 송영훈,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장화홍련'의 음악감독 겸 기타리스트 이병우,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현악4중주 콰르텟엑스가 출연, 새봄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다양한 연주곡으로 봄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멘델스존/봄노래

로드리고/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

쇼팽/피아노협주곡 제 1번 2악장 '로망스'

피아졸라/그랜드탱고 등

■ 관람료 VIP 66,000원 ·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스톰프뮤직(02-2658-3546)

김서원 피아노 귀국 독주회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도미, 뉴욕 맨하탄 음대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장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서원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라장조 K.576

포레/테마와 변주 작품 73 등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문화(633-8990)

부산극동방송 개국 1주년 기념 부산극동방송 여성코랄 창단 연주회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극동방송 개국과 함께 창단된 부산극동방송 여성코랄의 창단연주회로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남성성악가 12명으로 구성된 해피앙상블이 특별 출연한다.

프로그램

박지훈/신자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Gloria

잔 루터/영으로 주를 찬양, 평강의 하나님 등 수곡

· 지휘/김성규(경성대학교 교수)

· 반주/안준희

· 특별출연/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피 앙상블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극동방송(759-6000)

사물놀이 '청' 정기연주회 새봄-가무악의 만남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중극장

부산에서 활동하는 젊은 풍물꾼들이 모인 프로젝트팀 사물놀이 '청' 정기연주회.

'청'은 경상도의 뛰어난 가락과 호흡, 춤사위 등을 정리해 영남만이 가지는 전통예술공연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비나리, 삼도사물놀이, 진주교방무, 판소리, 판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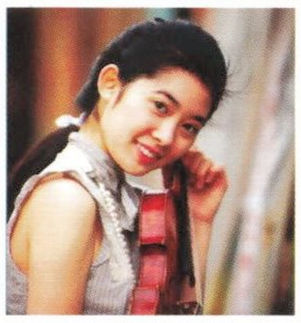
· 출연/박종환(부산농악 전수조교), 최의철(부산농악 이수자), 박순호(부산농악 이수자), 김인수(달성 다사농악 전수조교) 외

■ 문 의 사물놀이 청(634-6183)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제24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에스터 김

그동안 23회의 정기연주회, 부산음악인 시리즈, 청소년 교과서 음악회와 마술피리, 라보엠,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공연, 조수미 콘서트, 호세 카레라스 독창회, 부산바다축제, 한 · 일 빅 콘서트, KNN OST 콘서트 등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 24회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3년, 2004년 문화관광부 주최 전국순회음악회에 지방교향악단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해 왔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한 여름밤의 꿈' 서곡 작품 61

사라사테/지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사라사테/카르멘 환상곡, 작품 25

멘델스존/교향곡 4번 '이탈리아' 가장조, 작품 90

· 지휘/오충근(수석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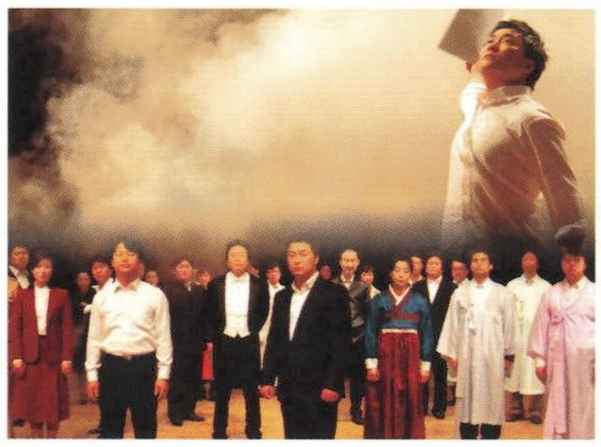
· 협연/에스더김(바이올리니스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티켓링크(1588-7890), 문지은(010-8508-8310, www.bso21.com)

부산시립합창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창작오페라음악극 '윤동주'

4월 28일 목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지난 2월 '희망'을 메시지로 2009년을 힘차게 출발한 부산시립합창단의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창작오페라음악극 '윤동주'.

부산 초연무대로 선보이는 오페라 뮤지컬 '윤동주'는 그동안 시인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부쳐왔던 작곡가 이용주가 창작한 음악극으로, 자신이 작곡한 가곡을 다양한 형태로 편곡하고 윤동주의 삶을 극화시켜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작품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노래했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통해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움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 작곡/이용주 · 지휘/김강규

· 연출/정순지

· 출연/최춘식 이재원(윤동주), 김창돈 김태우(송몽규), 김나영(윤혜원), 최영수(윤동주 부), 최선희(윤동주 모), 강은태(강태식), 남순천(시즈코), 엄남이(친구 여), 구명금(친구 남), 오승중, 이연기(형사), 남기호, 조성기, 전귀만, 장은경(교회사람), 김웅태, 최난영, 권정은, 김미경, 최성규(행인), 이정철(시낭송)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0원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 CBS 창립50주년 기념 성가대합창제

4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부산시내 10개 교회 성가대가 참가하는 부산 CBS 창립50주년 기념 성가대합창제.

출연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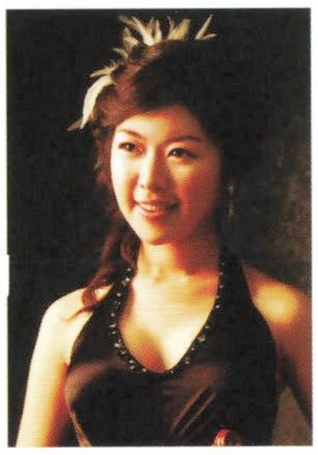
서문교회, 수영로교회, 포도원교회, 엄궁교회, 초량교회, 하단교회, 부산장로성가단, 기드온콰이어, CBS권사성가단, CBS여성합창단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 CBS(636-0050)

김은샘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4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 재학중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Magdalena Rezler 교수 추천으로 도독, 바이마르 프란츠 리스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학부 및 석사과정)을 최연소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샘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라단조 BWV 1004

그리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2번 사장조 작품 12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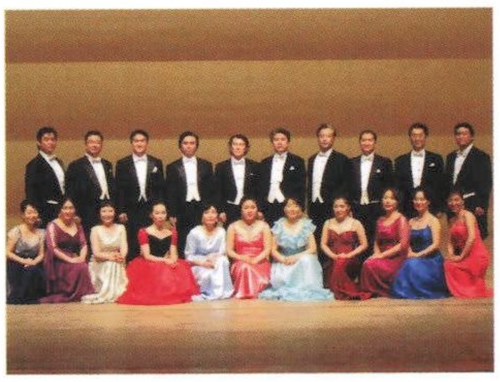
· 피아노/박태희

■ 관람료 초대

■ 문 의 김은샘(010-4757-4063)

2009 부산성악 아카데미 독일 가곡과 아리아의 밤

4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에서 수학한 부산의 성악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두 사람의 척탄병, 바위 위의 목동, 아델라이데 등의 독일가곡과 오페라 '마탄의 사수' '탄호이저'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출연

김길수, 이은민, 이홍득, 안상철, 윤정윤, 박기범, 김화정, 이한성, 양승엽, 허미경, 우명화, 박현정, 전영무, 박은미, 이민정

· 피아노/박미은, 박기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부산성악아카데미(010-7767-439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09 웰빙콘서트 Ⅱ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지휘 이동신

해설 김문경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하는 2009 웰빙콘서트 두 번째 무대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리톤 강경원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20세기 선구자적 작곡가로 평가받는 말러의 음악세계를 말러 스페셜리스트 김문경의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 해설과 진행을 맡은 국내 최고의 말러 권위자 김문경은 말러의 생애와 교향곡 분석을 집대성한 '구스타프 말러' 3부작을 완간하여 음악애호가들의 찬사와 함께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음악칼럼니스트로서의 지평을 넓혀왔다.

프로그램

콩트 '말러의 유년기와 청년기 중에서'(출연/부산시립극단)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제 2번 작품 46-2

말러/'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아침의 초원을 거닐며', '내 마음에 있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

말러/'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파두아의 성 안토니우스', '지상에서의 삶'

슈트라우스/안넨 폴카 작품 117

말러/교향곡 제 4번 사장조 4악장

· 지휘/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해설 및 진행/김문경(음악칼럼니스트) · 협연/메조소프라노 김선정, 바리톤 강경원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9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한국 (주)세븐센스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5월 1일-2일 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신체극과 마임(Physical Theatre & Mime)'을 컨셉으로 독일, 러시아,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프랑스, 한국 등 9개국 24편의 초청작품이 편쳐지는 2009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브레이크 아웃(Break out)'은 2007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를 흥분시킨 화제작으로 비보이 댄서들이 배우로 변신, 점프에 이어 세계 공연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국만의 익스트림 공연으로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유니언스퀘어극장(Union Square Theatre) 장기 공연에 들어간 익스트림 댄스 코미디 '브레이크 아웃'은 교도소에 떨어진 한 권의 책(비급)이 죄수들을 변화시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무대 전체가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브레이크 아웃'의 세트는 전 세계 유일의 전환방식을 가진 독특한 세트다. 책장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펼쳐지는 마술 같은 세트 전환은 관객으로 하여금 색다른 판타지를 경험하게 한다.

· 예술감독/백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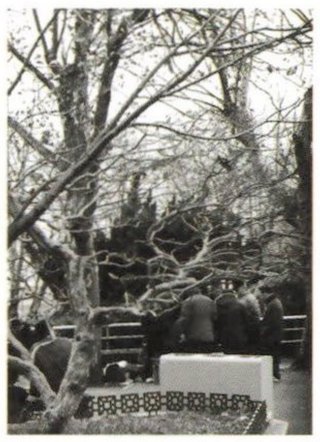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5세 이상 입장가능)(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819-6920)

시민회관

2009 제 27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하늘개인날 황혼의 블루스

4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3일 금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공원에서 색소폰을 부는 주인공과 그 주변사람들을 통해 소외계층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

· 작/최송림
· 연출/김태호
· 출연/권철, 이정허, 이현옥, 권혁진, 김은경, 안지영, 허경진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하늘개인날(646-0320)

2009 제 27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도깨비 사이버 세상을 만나다

4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9일 목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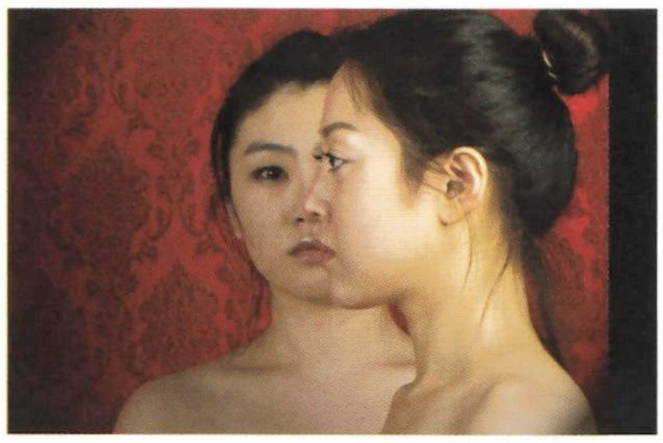
또 다른 세상인 사이버세계와 만난 울 동네 합창단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울 동네 합창단' 시즌2 무대.

· 작,연출/김익현
· 출연/전민수, 백정임, 차일환, 김민성, 최은실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도깨비(722-4231)

2009 제 27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극단 누리에 몽실

4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12일 일요일 오후 4:30, 7:30 소극장



식모살이를 하는 몽실, 지영 두 자매와 그들을 사사건건 괴롭히는 주인 모녀의 관계를 심리적, 성적인 측면으로 풀어낸 작품.

· 작/송희연 · 연출/강성우
· 출연/강금봉, 이지혜, 최성희, 최현경, 황정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극단 누리에(621-3573)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12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혼자 잘나서 사는 줄 알던 못된 딸과 이세상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이 딸을 낳은 것이라 여기는 친정엄마와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암선고를 받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딸을 향한 가슴뭉클한 모성애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낸다.

· 작/고혜정 · 연출/구태환
· 출연/강부자, 전미선, 이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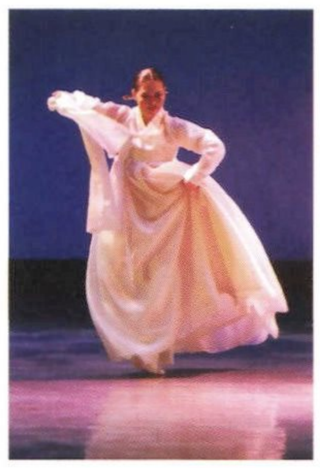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문 의 MK엔터테인먼트(626-7400)

2009 제 27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김정원 춤소리예술단 김정원의 춤 향

4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연극제를 축하하기 위한 신명나는 우리 전통춤 한마당.

살풀이춤, 성주풀이, 산조춤, 태평무 등 아름다운 우리 전통춤을 선보이는 1부 '향(香)' 무대에 이어 2부 '흥', 3부 '신명' 무대에서는 판소리와 승무, 판굿, 진도북춤, 소고춤 등 신명 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청소년 10,000원
■ 문 의 김정원 춤소리예술단(636-8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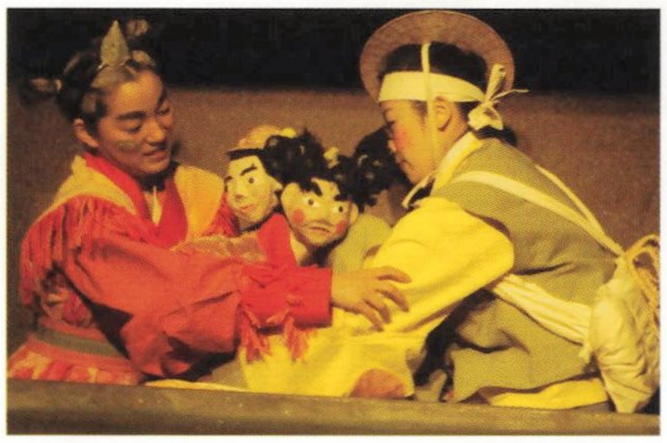
이은미 20주년 콘서트 '소리 위를 걷다'

4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8:00 대극장

■ 관람료 VIP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 문 의 (주)시저스컨텐츠그룹 (02-6403-5501)

어린이 국악뮤지컬 덩실덩실 깨비깨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소극장



설화 속 도깨비 이야기를 우리의 판소리와 탈춤, 민요 등 국악과 씨름, 제기차기 등 전래 민속놀이와 접목시킨 국악체험 놀이극.

· 연출/이덕인

■ 관람료 균일 12,000원
(기획사 전화예매시 9,000원)
■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1일 소프라노 양라윤 독창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 로마 A.D.I.A 아카데미 ArteInsieme과정, 미국 맨하탄음대, 메네스음대 CMC-USA 과정을 수료한

소프라노 양라윤 독창회.

양라윤은 국립오페라합창단 객원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브람스/집시의 노래

사티/열정의 여신

투리나/노래형식의 시 등

■8일 곽다경 바이올린 독주회

TBC콩쿠르 1등, 세계일보콩쿠르 2등, 동아콩쿠르 2등상을 수상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곽다경 바이올린 독주회.

■15일 김희정 바이올린 독주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석사과정), 에쎈국립음대(박사과정)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신포니에타 단원, 아르스 퀄텟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독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 소나타 제 8번 사장조 작품 30

드뷔시/바이올린 소나타

뿔랑/바이올린 소나타

■22일 부산음악사랑회 제 4회 정기연주회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부산음악사랑회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 출연/최명호, 한숙희(플루트), 원요한, 동문수, 장철남, 박성만, 서명보(테너), 강경원(바리톤), 이경자, 정복귀(소프라노)

■29일 조미혜 바이올린 독주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 독주회.

■ 프로그램

코렐리/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5 제 3번 다장조

바흐/바이올린 소나타 제 1번 나단조 등 수곡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봄을 여는 정엽의 첫 번째 라이브 콘서트

4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8:00

5일 일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AN시티(1644-4484)

김인호 제 5회 플루트 독주회 김인호가 들려주는 오페라 이야기

4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유니세프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플루트앙상블, 노모스 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김인호는 그동안 카네기홀 듀오리사이틀, 줄리어스 베이커 초청 플루트 페스티벌, 제주국제관악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마술피리

프랑크/리골레토 환상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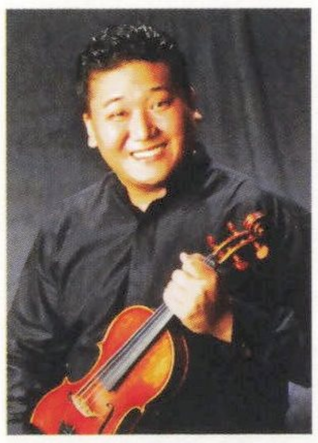
비제/카르멘 환상곡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김인호(017-554-7777)

부산신포니에타 제 65회 정기연주회

4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1986년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를 리더로 부산 최고의 연주기량을 가진 현악주자들로 결성된 부산신포니에타의 65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지네티 콩쿠르 1위,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 1위, 티보르바르가 국제 바이올린콩쿠르 2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가 협연한다.

빈국립음대와 그라즈 국립음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한 김응수는 화려한 테크닉과 폭넓은 음악적 해석, 가슴을 울리는 연주로 세계음악계에 주목받고 있다.

■ 프로그램

그리그/두개의 엘레지 작품 34

하이든/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다장조

이자에/바이올린 소나타 제 3번 발라드 등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 문 의 김영희(010-8519-0448)

2009 남성앙상블 칸타빌레 교과서 음악회

4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이탈리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해외 국립대학에서 음악공부를 마친 정상급 남성성악가들로 구성된 남성앙상블 칸다빌레가 마련한 교과서 음악회.

■ 프로그램

한국가곡/사공의 노래, 보리밭, 희망의 노래

영미가곡/아름다운 꿈, 올드 블랙 조, 오 수잔나

예술가곡/그리운 마음, 너 왜 울지않고 등 수곡

· 출연/이홍득, 이은민, 윤정윤, 양승엽(테너), 김길수, 안상철, 심정보(바리톤), 박기범, 이상철(베이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안상철(010-2400-5271)

소프라노 구민영 귀국독창회

4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한양대학교 음악학과와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수석졸업한 소프라노 구민영 귀국독창회.

소프라노 구민영은 그동안 Premio Enrico Segattini 국제콩쿠르(특별상 수상), Lauri Volpi 국제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헨델/흐르는 시냇물
도니제티/가련한 사랑
김동환/그리운 마음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구민영(010-2460-2450)

가족뮤지컬 서울쥐와 시골쥐

4월 10일(금)-12일(일)
금요일 오전 10:30, 11:40(단체공연),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공연장

도시의 화려한 겉모습에 반했지만 결국은 마음 편한 시골의 내 집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이솝우화를 각색한 가족뮤지컬.

■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 문 의 색연필(1566-9786)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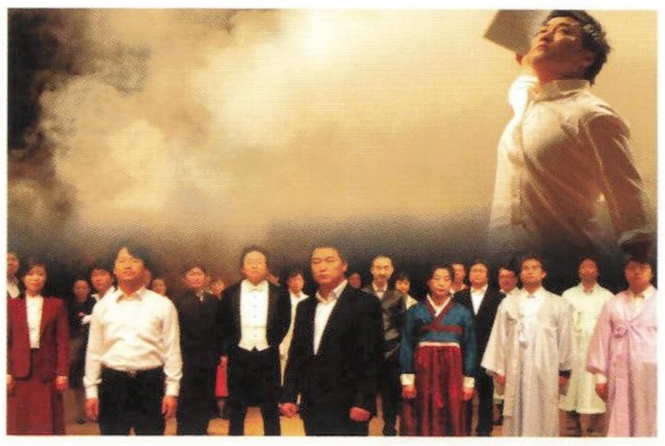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창룡 독창회.

그동안 포레, 슈베르트, 브람스의 가곡을 완창했던 이창룡은 이번 무대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가곡인 포레의 '라본느 샹송'과 뿔랭의 '화가의 작업'을 들려준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창룡(240-2827, 285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창작오페라음악극 윤동주

4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부산시립합창단의 창작 오페라음악극 '윤동주'.

그동안 시인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부쳐왔던 작곡가 이용주가 창작한 음악극으로, 자신이 작곡한 가곡을 다양한 형태로 편곡하고 윤동주의 삶을 극화시켜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작품이다.

· 작곡/이용주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연출/정순지

■ 관람료 초대 (※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도 공연합니다.)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5), 금정문화회관(519-5651)

박민선 피아노 독주회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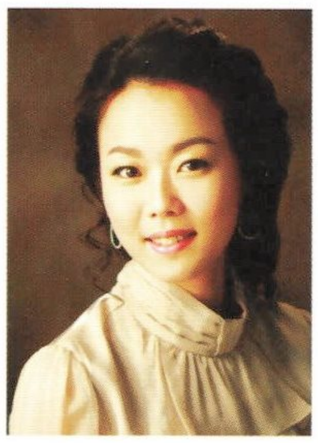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박민선은 우수신인 피아노콩쿠르 1위, 한국피아노학회 콩쿠르 대학원부 입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6개의 변주곡 WoO 70
베토벤/소나타 작품 27 제 1번
슈만/환타지 작품 17 등

■ 관람료 초대
■ 문 의 박민선(010-5517-8231)

소프라노 장회진 귀국독창회

4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브람스 시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장회진 독창회.

장회진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출연, '음악적인 표현력과 테크닉적인 완성도를 갖춘 연주자'로 호평받았다.

■ 프로그램
슈베르트/행복
드뷔시/'베를린느' 시에 의한 3개의 가곡
마이베어/오페라 '디노라' 중 '그림자의 노래' 등 수곡
· 찬조출연/테너 양승엽

■ 관람료 초대
■ 문 의 장회진(010-2253-7896)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소공연장

용기와 꾀로 과자집 마녀를 물리치는 헨젤과 그레텔의 모험담과 가족의 소중함을 그린 가족뮤지컬.

· 연출/정소영
· 출연/강규영, 강지성, 정경일, 안미현, 이보은 외

■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소프라노 이은미, 장은녕 2인 음악회

4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이은미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장은녕이 함께하는 2인 음악회.

■ 프로그램
볼프/은둔
토스티/4월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이름' 등 수곡
· 피아노/최성근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매그너스(010-8277-4746)

바체비치 탄생 10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허혜정 리사이틀

4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력과 학구적인 성실함을 갖춘 연주자로 평가받아온 피아니스트 허혜정 독주회.

폴란드 작곡가 바체비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바체비치의 10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전곡을 국내초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0-7508-5050)

앙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정기연주회

4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2008년 현대음악에 관심있는 실력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앙상블 아이리스 인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부산의 실내악 무대를 주도하고 현대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 프로그램
보로딘/현악4중주 제 2번
차이코프스키/현악 6중주 '플로렌스의 추억'
슈만/피아노 4중주
· 음악감독/김영준(바이올린), 장형준(피아노)
· 연주/백재진, 김준영, 이기종, 김도경, 이리나(바이올린), 임정은, 최영식(비올라), 양욱진(첼로), 정성흡(피아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해운대문화회관

피아니스트 김성숙, 김해옥 2인음악회

4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김성숙

김해옥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석사)를 졸업하고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과 신라대학교와 Austria-Wie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해옥이 함께하는 2인음악회.

■ 프로그램
슈베르트/Sechs Moments Musicaux 작품 94 D.780
무소르그스키/신 스페인무곡 작품 65
쇼팽/3개의 녹턴 작품 9
라흐마니노프/ 6개의 소품 작품 9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클래식 프로인트(02-3141-5729)

쇼페라 춘향뎐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우리의 고전 '춘향전'을 새롭게 각색한 '춘향뎐'은 클래식과 국악, 연극과 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퓨전무대이다.
· 단장/배수진
· 연출/김도형
· 출연/배수진, 윤석, 김도형, 강희영, 박건태, 박수진, 윤장미, 이은정, 오정민 외
· 연주/황다운(피아노), 안성훈(타악기), 정동주, 박재현(국악타악기), 강시내(아쟁)

■ 관람료 균일 10,000원
(해운대문화회관 누림회원 1,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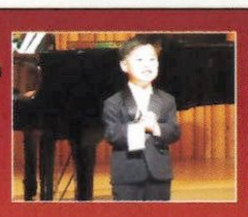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Sing Sing Mama Concert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30 대공연장

제일여성병원 연규선 원장이 진행하는 특별강좌와 다비드현악팀의 클래식연주로 펼쳐지는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 진행/김윤선

■ 관람료 균일 3,000원
■ 문 의 (주)해운대문화회관(749-7651~3)

제 7회 글로빌전국음악콩쿨



콩쿨장소 : 국제수준의 음향홀 글로빌아트홀
참가 대상-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전공 및 비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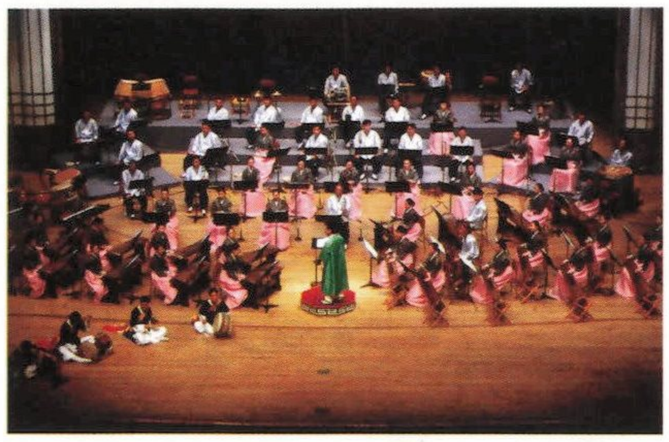
〈일 시 - 부문 별로 콩쿨 일자가 아래와 같음〉
성악 콩쿨 : 2009년 5월 2일(토) 피아노 및 작곡 : 5월 5일(화) 관현악 실내악 국악 : 5월 9일(토)
우수입상자 연주회 및 시상식 : 5월 31일 (일) 오후 5시

• 특 전 : 특별상 ->부산광역시장상 · 전체대상 ->부산대학교총장상 · 부문별 1등상-> 부산대문화콘텐츠원장상 글로빌아트홀관장상 · CD 및 DVD제작
• 접수기간 : 2009년 4월 13일~30일
• 신 청 금 : 7만원(국민은행 135701-04-117216 글로빌아트홀)
• 과 제 곡 : 자유곡 1곡(작곡은 당일 모티브 제시함)
• 비 고 : 악기별 및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심사함
• 접 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glovil@paran.com으로 접수(방문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글로빌아트홀(051-505-5995) 기타 공지는 홈페이지(www.glovil.org)를 수시로 참조 바람

동래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6회 정기연주회 동행-특수악기와의 만남

4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북한의 개량피리인 대피리와 소금, 태평소 등 다소 생소한 특수 국악기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6회 정기연주회.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국악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협주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정세용/대피리를 위한 관현악 '새날의 기쁨'
조재군/소금을 위한 관현악 '파미르 수상곡'
최경만(재구성)/태평소를 위한 관현악 '호적풍류 협주곡'
강봉천(편곡)/창과 관현악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 아리랑' 등

· 지휘/박호성(수석지휘자
· 협연/박순자(대피리), 한영길(소금), 진형준(태평소), 박성희, 정선희(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꽹과리/이주헌, 장구/전학수, 북/신문범, 징/최오성)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KBS부산홀

어린이 난타-요리사편

4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5일 일요일 오후 1:00, 5:00

요리사들의 생일잔치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착한 마법사들이 펼치는 신나는 노래와 마법의 세계 '어린이 난타'.

■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25,000원
■ 문 의 knp엔터테인먼트(1599-8879)

파워레인저 와일드 스피릿-부산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4:00,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4m에 달하는 로봇과 마샬아츠 전문배우들이 출연해 화려한 액션으로 재미를 더하는 캐릭터 뮤지컬.

■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30,000원
■ 문 의 삼정엔터테인먼트(1588-8477)

MC몽 전국투어콘서트 부산공연

4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 문 의 (주)IS엔터테인먼트(1544-1555)

심수봉 30주년 기념 투어 콘서트

4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7:30

■ 관람료 VIP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 문 의 (주)Knp엔테테인먼트(1599-8879)

소극장

2009 점프 부산

1월 1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껸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주)아트포(744-4885)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3월 13일(금)-4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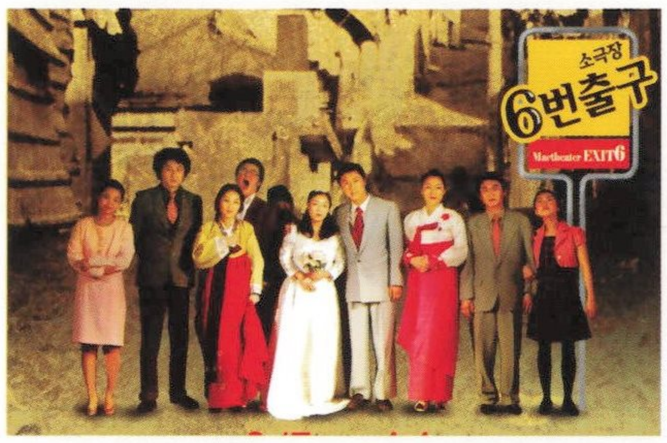
사랑을 갈구하는 아니 생긴 여자 주인공 박정봉의 무공해 유기농 로맨스극으로,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캐릭터와 빠른 극 전개로 감동과 재미를 전해준다.

· 작, 연출/김민우
· 출연/류혜린, 황하규, 변은지, 이용탁, 차승호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245-0042)

소극장 6번출구 개관 기념공연 시리즈 1 연극 우리동네

3월 17일(화)-4월 4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번출구



1938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극 '우리동네'.

원작속의 1900년대 미국 뉴햄프셔가를 1980년대 부산으로 극의 배경을 옮겨와 부산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삶을 그려낸다.

· 원작/손톤 와일더 · 각색, 연출/신봉석
· 출연/정원혁, 강숙하, 권미영, 이정형, 김소진, 윤준기, 박선현, 신서진, 이재연, 권은하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 의 소극장 6번출구(625-2117)

배우창고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3월 20일(금)-4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공간소극장

도시 변두리 구식통닭집을 배경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이웃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창작극.

· 작/강병헌
· 연출/양지웅
· 출연/문성미, 김지혜, 서경화, 김병철, 김하영, 조정우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극단 일터 뮤지컬 너, 붉은사랑

3월 20일(금)-4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화요일 공연없음) 일터소극장

일제강점기 농민운동과 노동쟁의를 정면으로 다뤘던 강경애의 1930년대 문제작 '인간문제'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뮤지컬 '너, 붉은 사랑'.

· 연출/김기영
· 출연/박성진, 김선관, 이수옥, 조기정, 박령순 외

■ 관람료 일 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중고생 12,000원 · 초등생 10,000원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러블리 뮤지컬 두드림 러브

3월 20일(금)-4월 19일(일)
평일 오후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긴 연애끝에 결혼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두 남녀가 과거로 돌아가 잊고 있었던 사랑의 소중한 추억을 깨닫게 된다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최창열
· 출연/박시범, 김소향, 전소영, 김사라, 명재환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 프로포즈석(2인석)
8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0%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월드시네마 Ⅵ

3월 20일(금)-4월 19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세계영화사에 빛나는 걸작들을 소개하는 시네마테크 부산 '월드시네마' 여섯 번째 상영전.

버스터 키튼의 경이로운 무성영화 '셜록 주니어'에서부터 현대 영국영화의 총아 마이클 윈터보텀의 '광끼'까지 전 세계 영화팬들을 매료시켜온 22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Happy and Dim-행복했습니까

3월 27일(금)-4월 11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해피앤딩을 꿈꾸는 여자들의 사랑, 또는 감성에 관한 작품. Happy and Dim-추억, 초콜렛나무, Happy and Dim-신데렐라 등 에피소드 4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 작, 연출/하현관 · 객원연출/오치운
· 출연/배진만, 김성희, 김유하, 김초록, 주현정, 김지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극단 아센 주와 민

3월 27일(금)-5월 1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매주 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지난 사랑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가는 여주인공 주와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민, 조금은 어눌하면서도 남루한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배우 구민주와 호민의 연기앙상블로 펼쳐진다.

· 연출/호민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7일 비르투오조앙상블 초청연주회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중심으로한 피아노 트리오로 시작,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 부산 비엔날레초청연주, 독일문화원 초청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르투오조앙상블이 마련하는 피아노 실내악의 밤.

■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4중주 사단조 K.478
브람스/피아노 트리오 나장조 작품 8 등

■14일 앙상블 뮤젠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2005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를 리더로, 피아니스트 김민선, 해금주자 윤해승, 첼리스트 박현영으로 결성된 국악과 양악을 접목시킨 앙상블 뮤젠 초청연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5번 '유령'

멘델스존/피아노 트리오 1번

김영재/해금독주곡 '적념' 등

■21일 소프라노 전귀만 독창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소프라노 전귀만은 그동안 '라보엠' '나비부인' '아이다' 등 오페라 무대를 비롯 100여회가 넘는 다수 무대에 서왔다.

■ 프로그램

벨리니/아름다운 은빛 달이여

슈베르트/봄의 신앙

로시니/오페라 '세빌랴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목소리' 등 수곡

■28일 김은정 성가 독창회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가톨릭합창단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 성가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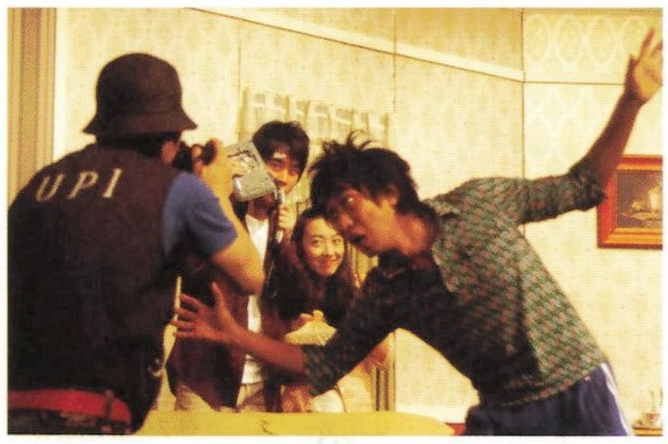
· 우정출연/구원모(베이스)

■ 관람료 일반 10,000원 청소년 5,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라이어 1탄

4월 1일(수)-5월 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2004년 초연 이후 공연횟수 3,000회, 80만 관객을 돌파한 스테디셀러 무대 '라이어' 시리즈 1탄.

작은 거짓말이 계속 부풀어져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상황이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폭소코믹극이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의 버자이너 모놀로그

4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동아대학교 석당홀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여성의 성과 삶을 신랄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연극으로, 뮤지컬 '맘마미아'의 히로인 최정원, 전수경, 이경미 등 디바 3인방의 3색 무대가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45,000원

■ 문 의 (주)MI미디어(1600-8767)

염쟁이 유씨

4월 10일(금)-5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소극장 연극 사상 최단기 6만 관객, 누적 공연회차 760여회, 전체 관람객 12만명을 돌파한 모노드라마의 새역사를 쓴 연극 '염쟁이 유씨'.

한평생 염을 업으로 살아온 염쟁이 유씨의 삶을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우리의 전통 장례문화를 통해 삶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감동적으로 풀어낸다.

2002년 민족광대상을 수상한 배우 유순웅이 1인 15역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선사한다.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굿모닝 대디

4월 10일(금)-5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4/25일-26일,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고군분투하는 소녀가장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극 '굿모닝 대디'.

· 작/전상배 · 연출/김만중

· 출연/이혜영, 김성현, 박유진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조규찬 소극장 콘서트

4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7:00, 12일 일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홀

■ 관람료 균일 50,000원

■ 문 의 프리덤콘서트(1600-1268)

서심미, 이화영선 듀오콘서트

4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서심미와 경남 챔버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화영선이 펼치는 듀오무대.

■ 프로그램

바흐/예수, 나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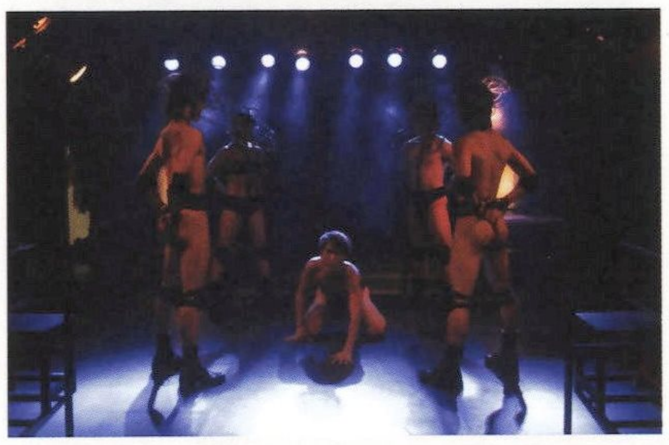
그리그/페르귄트 조곡 제 1번 작품 46, 제 2번 작품 55

모차르트/네 손을 위한 소나타 다장조 작품 521 등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이화영선(010-7257-4042)

부두연극단 에쿠우스

4월 14일(화)-5월 3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5:00(단, 4/25일은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지난 1985년 첫 공연을 가진 후 다섯 번째로 무대에 올려지는 부두연극단의 레퍼토리 무대 '에쿠우스'.

26마리 말의 눈을 쇠꼬챙이로 찌른 마굿간 소년의 엽기적인 범죄사실을 소재로, 현대인의 존재의식과 삶의 실상을 싸이코 드라마와 제의극적 방법으로 표현한 화제작이다.

· 작/피터 셰퍼 · 연출/이성규
· 출연/송진경, 장기훈, 박다미, 우명희, 문지연, 김종국, 안나성혜, 전승, 이신호, 조우성, 김응모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대학생 단체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극단 새벽 창단 25주년 특별기획 아카데미 동문 합동공연 쁘띠 부르주아의 결혼

4월 17일(금)-25일(토)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5:00(월-목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극단 새벽의 연극아카데미 출신 동문들이 마련하는 특별 합동공연.

결혼식 피로연에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소시민(쁘띠 부르주아)의 부질없는 허위의식을 실랄하게 풍자한 작품이다.

· 작/브레히트 · 연출/이성민
· 출연/배민수, 김종미, 최민식, 박규훈, 김보현 외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아시아 독립영화의 오늘 아시아영화펀드 쇼케이스 2009

4월 21일(월)-26일(일) 시네마테크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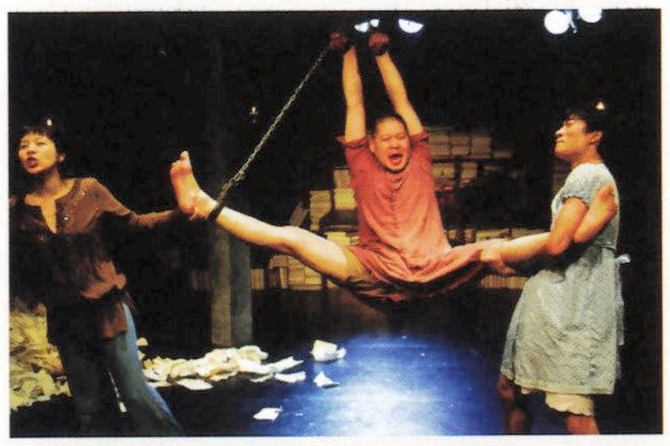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펀드의 지원 완성작을 소개하는 아시아영화펀드 쇼케이스 2009.

로카르노영화제 최고상인 타이거상을 수상한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를 비롯 우리나라와 중국, 태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독립영화의 현재를 가늠할 수 있는 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열린소극장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1 트라우마

4월 22일(수)-5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5/3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외진 산장에 숨어 현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한 가족을 통해 부조리한 삶의 비극성을 그려낸 작품.

· 작, 연출/구현철 · 안무/강희정
· 출연/최웅, 유재명, 양지웅, 조문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예매시 20% 할인)
■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The Beautiful Passion

4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신라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신진 피아니스트 6명이 펼치는 열정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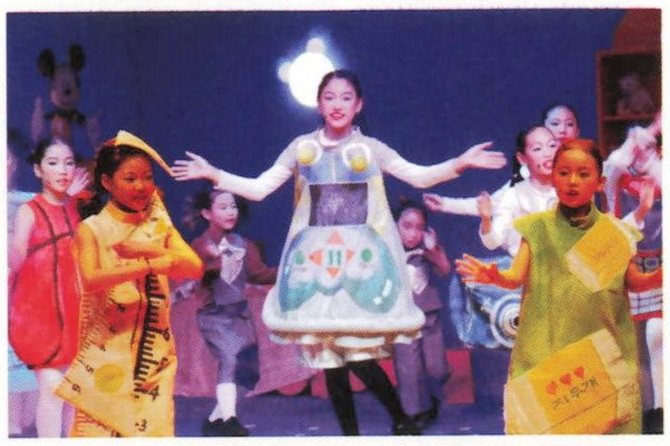
· 출연/임혜민, 오정란, 김윤혜, 조주영, 윤미경, 배은영

■ 프로그램
리스트/헝가리 랩소디
리스트/에튜드
리스트/쇼팽의 마주르카 등

■ 관람료 초대
■ 문 의 글로빌아트홀 (051-505-5995)

제 15회 글로빌아트홀 행복음악회 특별초청 가족 뮤지컬 One Magical Day

4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들로 결성된 영어뮤지컬 극단 투모로(2MORO) 극단이 선보이는 가족 뮤지컬 'One magical Day'.

· 지도/박보은

■ 관람료 초대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행사

부산시울림 제 82회 시낭송회

4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성수자, 이채영, 최원준, 정희경, 조범산, 조원, 도미솔

· 찬조출연/손영희(팝페라 가수)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영광문화예술원 4월 특강 사진가 한정식과의 만남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대구예술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중앙대학교와 백제 예술대 명예교수로 있는 원로 사진가 한정식 초청 특강.

■ 관람료 현매 20,000원 · 예매 10,000원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전시

복천박물관 특별전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2월 10일(화)-4월 12일(일) 복천박물관

• 관람시간/오전 9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 문 의 복천박물관(554-4264)

부산시립미술관 신소장품 2008

2월 28일(토)-4월 2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H 전시실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안창홍:시대의 초상

2월 28일(토)-5월 5일(화)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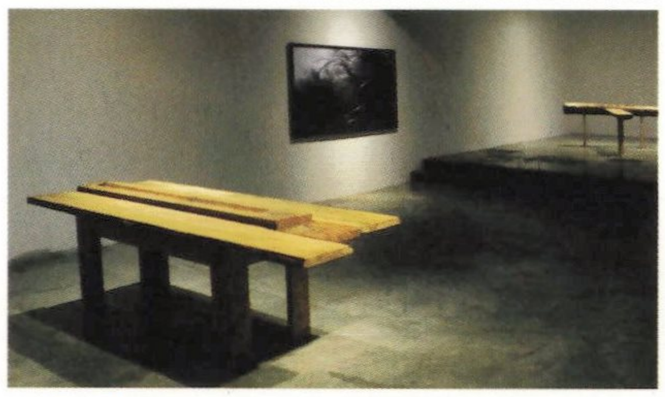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대정신을 표현해온 중진작가 안창홍 작품전.

2000년대 초 이후 대표작과 근작들을 중심으로 총 1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심문섭 'Sculptures'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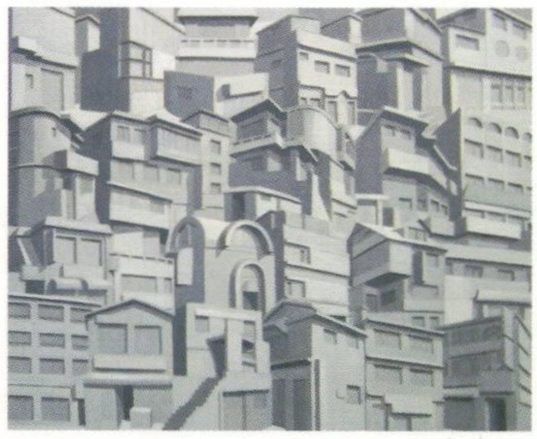
3월 14일(토)-4월 11일(토) 갤러리 604



■ 문 의 갤러리 604(245-5259)

정직성 초대전

3월 20일(금)-4월 20일(월) 조현화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서울의 골목길을 걸어다니며 채집한 구체적인 건물 구조와 형태를 재조합해 환상적인 도시이미지를 화폭에 담아온 정직성 초대전.

■ 문 의 조현화랑(747-8853)

그룹 '상' 창립전

3월 27일(금)-4월 5일(일) 롯데화랑 부산본점

■ 문 의 롯데화랑 부산본점(810-2328)

윤영화 작품전

4월 1일(수)-4월 30일(목)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최환갑 개인전

4월 3일(금)-4월 9일(목) 롯데화랑 부산본점

■ 문 의 롯데화랑 부산본점(810-2328)

하종우 창작지원전

4월 10일(금)-4월 23(목)

롯데화랑 부산본점

■ 문 의 롯데화랑 부산본점(810-2328)

Blue展

4월 7일(화)-4월 19일(일) 갤러리영광

· 참여작가/공현진, 여현지, 이현주, 정혜련, 정한나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부산북아트연구소 회원전 What is a book?

4월 21일(화)-4월 26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김태진 개인전

4월 24일(금)-4월 30일(목)

롯데화랑 부산본점

■ 문 의 롯데화랑 부산본점(810-2328)

조재만 흑백사진전 '의미(meaning)'

4월 28일(화)-5월 3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사진은 보는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

사진집단 일 우

〈'카메라 테크닉을 배우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사진을 찍고 싶은 분, 지금 가진 건 달랑 카메라 한 대뿐이지만 사진사에 한 획을 긋겠노라 겁 없이 작정하신 분, 왜 아직 이런 사진 밖에 찍지 못하나 답답해 카메라 탓을 하시는 분, 사진은 생초보이지만 독특한 자기 세계가 있으신 분…(16기 회원모집 공고)'〉

사진에 물음표를 찍고 모인 사진집단 일우(회장 이성욱)에는 이런 회원들로 가득하다. 사진을 보는게 아니라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부지런히 찍고 읽고 토론한다.

사진집단 일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진작가 김홍희씨. 사진모임 일우는 그의 제자들로 구성됐다. 모임명인 '일우' 역시 그의 호에서 부쳐진 이름으로 '한모퉁이를 비추는 빛이 세계를 비춘다'는 불교용어 '조천일우(照千一隅)'에서 따온 말이다. 김홍희씨로부터 비쳐진 한모퉁이의 빛이 이제는 세상을 비추고 있는 셈이다.

2003년 1기로 시작된 일우는 지금까지 매년 6개월 과정으로 두 기수를 배출하면서 현재는 2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의사, 교수, 소설가, 스님, 학생 등 나이와 직업은 다양하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다르지 않다.

김홍희 씨가 진행하는 6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사진집단 일우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일년에 두 번, 부산과 서울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는데, 지금은 17기 17명이 부산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미국의 한인들로 구성된 미주 일우 1기가 결성되기도 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여느 동호회 모임처럼 설렁설렁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 회원들은 매주 자신이 정한 주제로 다섯 장의 작품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사는 물론이고 미술사, 세계사, 철학, 문학 등등 다양한 주제의 서적을 섭렵하고 레포트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진 속에 자신의 철학을 담는 사진작가로 거듭나게 된다. 말이 모임이지 전문 사진작가를 양성하는 일종의 '사관학교'인 셈이다.

훌륭한 작가를 양성하겠다는 김홍희 씨의 바람처럼,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지만 '일우'와 만나면서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다. 그래서 '일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활동도 바로 전시와 출판. 매년 기수별 졸업전을 비롯해 2~3차례의 정기전과 회원들의 개인전을 가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열린 전시회 수만 해도 70여회가 훌쩍 넘는다. 또, 매년 여름과 겨울 부산과 서울에서는 유명사진작가의 특강이 펼쳐지는 사진학교도 열린다.

매년 열고 있는 단체전 '시종의 경계에서'전과 '7번국도'전은 일우만의 독특한 기획이 돋보이는 전시이다. 매년 12월 마지막날인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동안 회원들의 다양한 시선으로 구성되는 '시종의 경계에서'전은 지난 2월 두 번째 전시를 갖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일 하루동안 7번국도를 따라 담아낸 '7번국도'는 올해 전시와 출판을 앞두고 있다.

■문의/사진집단 일우(ww.kimhonghee.co.kr)

정창관의 여덟번째 국악녹음집

박대성의 국악세계

권 은 영_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겨울을 씻어내려는 듯 이른 봄비가 자주 내리는 요즘이다. 대지를 적셔주는 단비로 맨몸으로 죽은 듯 겨울을 지낸 나뭇가지에서 어김없이 새 봄이 맺힌다.

특히 봄의 전령사라 할 만큼 칼바람에도 피어나는 매화! 벚꽃과 비슷하나 어지럽지 않고 배꽃과 흡사하나 청승스럽지 않아 참 좋다. 그 꽃의 향기를 코를 대고 맡기보다는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향기가 참으로 매혹적이다.

오늘은 이 매화를 닮은 음반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박대성 명인의 아쟁산조가 실려 있는 정창관(한국고음악연구회 회원)의 여덟번째 국악녹음집 '박대성의 국악세계' 이다.

박대성 명인은 진도 출신이다. 판소리의 명창 박동준의 아들이며 창극과 잡가의 명인 박보아, 박옥진의 남동생이고 대금산조의 시조 박종기 및 진도 씻김굿의 기예능 보유자 박병천과도 한집안이다.

예인의 가풍을 타고 났는지 뛰어난 예술성과 음악적 자질, 청렴하고 꼿꼿한 성품으로 칠순의 나이에도 현재 부산에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며 후진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실로 국악계에선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아쟁연주자이다.

대부분의 아쟁산조들은 진양조가 계면일색이나, 박대성류 아쟁산조에서의 진양조는 명인의 곧은 성품과 강직함이 닮아있는 우조가 특히 일품이다.

절제된 농현과 내면의 깊은 멋을 느끼게 하는 박대성 명인의 독특한 성음은 현재로써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명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모리에선 풍성한 계면조 농현으로 호탕하나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활대쓰기가 돋보인다. 이어 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화려한 기교와 예술성이 극에 달하는데, 그 화려함이 절대 현란하지 않고 가볍지 않음에 감동하게 된다.

두 번째로 수록된 아쟁 시나위는 보통 단잽이로 편성된 여러 악기들이 함께 어울리고 흩어지고,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연주되는 즉흥곡이지만, 박대성 명인의 아쟁독주로 이어지는 시나위는 여러 악기의 빈 공간을 종횡무진 활보하는 아쟁의 '자유로움' 을 독자들도 함께 느껴보길 권한다.

음반의 마지막에 수록된 보너스트랙 '세월' 은 박대성 명인의 歲月을 꼭 닮은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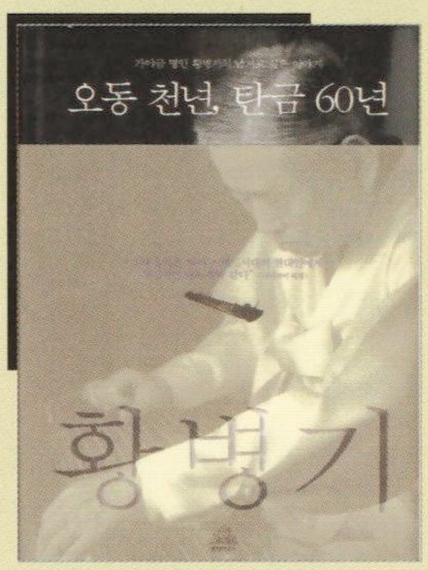
정교하고 단정한 활대쓰기와 농현으로, 70평생을 아쟁과 함께한 명인의 '세월' 은 강하고 온화하며, 격렬하나 결코 넘치지 않는, 그리고 깊히 마음을 파고드는 슬픔도 함께 느껴진다.

이른 봄, 매화를 닮은 박대성류 아쟁산조를 들으며 그 선율에 묻어나는 이 시대 최고의 아쟁 연주에 은근히 취해봄이 어떨까….

- 기획,제작/정창관
- 녹음/2005년 11월 12일
- 아쟁/박대성
- 장구/박환영
- 아쟁산조(한일섭제 박대성류), 시나위 수록

NEW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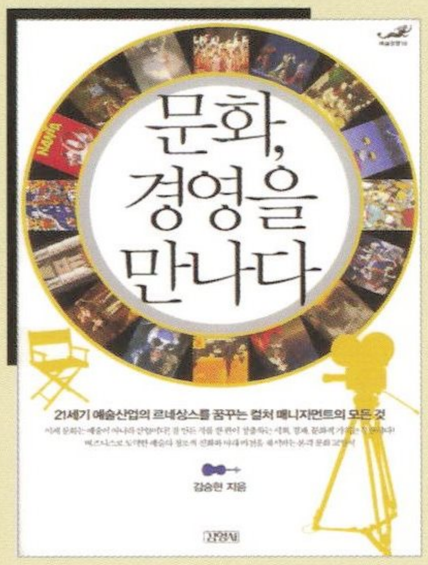
박 현 주_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오동 천년, 탄금 60년

황병기 지음
랜덤하우스 / 391p / 15,000원

국악은 대중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다. 가야금 역시 그러하다. 가야금 연주를 제대로 들은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황병기라는 이름 석 자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여성적인 악기인 가야금을 통해 비대중적인 우리 국악을 올곧게 지키고,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세계가 먼저 알아보았던 황병기의 예술혼을 만나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1951년 부산 피란 시절, 중학생 황병기가 가야금 소리에 첫눈에 반해 연주를 시작한 이후 평생의 70퍼센트 이상을 가야금을 동반자 삼아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는 책이다. 황병기 가야금 명인은 범상치 않은 고집과 흔들림 없는 자아, 전통의 계승과 파격을 넘나드는 사고의 확장을 보여 왔다. 가야금 연주가에서 작곡가로, 연주에서 창작으로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서 그의 음악은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빛나는 현대음악으로 인정받게 된다. 유럽 초연을 위해서 작곡된 '침향무'는 국내외의 음악애호가들, 클래식 마니아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어 미국 음악전문잡지 하이파이 리뷰는 "현대인들을 위한 정신적 해독제"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음악은 전통을 뛰어넘어 현대적이다.



문화, 경영을 만나다

김승현 지음
김영사 / 300p / 12,000원

국내 문화예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세계무대에서도 손색없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에 발맞춰 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필요성도 요구되는 때이다. 문화부 기자로 15년간 활동한 저자가 문화예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는 물론 비즈니스로 발돋움한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성공하는 문화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현장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책. 최근 출간된 문화예술, 예술경영 서적들이 학술적인 의미에 집중한 경향을 보이면서,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기에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여러 사람이 주제별로 쓴 글을 묶어낸 책도 많았지만 저자들의 개성과 이력이 다양해 일관된 흐름이 없다. 반대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실용적인 매뉴얼의 경우 내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학자나 행정가, 현장 경영자가 아닌 현장을 뛴 기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어 독자들이 이해하기도 싶겠다.

살림살이

윤혜신 글, 김근희 · 이담 그림
토박이 기획 / 보리 / 241p / 35,000원

어린 시절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먹던 추억이 있는 독자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 출판사 '보리'에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준비 작업 끝에 〈겨레 전통도감 살림살이〉를 펴냈다. 저자는 '살림'을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일, '살림살이'를 살림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먼저 설명하고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어 각 계절에 많이 쓰이는 살림살이들을 소개한다. 봄-장독, 소쿠리, 빗자루, 초병과 초 단지. 여름-두레박, 바가지, 물두멍, 돗자리, 죽부인. 가을-맷돌, 다식판, 누룩 틀, 소줏고리, 채반. 겨울-메주 틀, 시루, 화로, 등잔, 떡판과 떡메. 이렇게 철따라 꼭 필요한 우리네 살림살이들을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준다. 저자 윤혜신 씨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방학마다 놀러간 시골 외가에서 할머니께서 살림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옛 살림살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전통풍습대로 식구를 보살피는 살림살이를 해 온 할머니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잘 말해주는 책이다.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면서 사라져가는 옛 풍습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뮤클 해외원정대

이 상 훈_ 뮤클 운영자

여행을 하면서 멋진 공연을 같이 본다면, 게다가 국내에서 소개되지 않은 공연과 정상급 연주자의 연주를 뜻이 맞는 동호인이 함께 한다면 꿈같은 이야기일까? 여기 어느덧 7차례를 맞은 뮤클 해외원정대가 있다.

2005년 3월 첫 해외원정대가 다녀온지 만 5년이 지났다. 이후 2007년 8월 2차 해외원정대 이후부터는 매 계절별로 1회씩 추진되어 벌써 7차 해외원정대까지 다녀오게 되었으며 그동안 무려 88명의 뮤클 회원이 함께했다. 사실 계절별로 다녀오게 된 데는 일본의 극단 사계(Shiki Theater Company)와 뮤클이 자매결연을 맺게되면서 부터이다.

공연은 주로 일본 동경과 후코오카, 홍콩 등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공연들 중 우선적으로,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이를테면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을 위주로 선정하지만 4차부터는 현지 전용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태양의 서커스'와 뱃부의 '아르헤리치 페스티발'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사실 다음카페 뮤클(cafe.daum.net/muklebusan)이 국내 공연계에 서서히 알리게 된 것은 뮤클원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주로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이다 보니, 지방투어를 할 수 없는 서울의 대형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직접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벌써 다녀온 원정공연만 70여회가 넘는다. 이제는 서울로 공연을 보러가는 것이 뮤클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정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많은 공연에 대한 열망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해외원정대를 꾸리게 되었다. 결국 두 공연다 몇해 뒤 국내에 소개되긴 했었지만 프랑스 뮤지컬 'LES DIX Commandments'와 '라이온킹'을 일본 동경에서 관람한 1차를 시작으로, 여전히 국내에 정식 라이센스로 초연되지 않은 뮤지컬 '위키드'와 '레미제라블'을 관람했던 2차, 그리고 3차에서는 이승엽 선수의 야구 관람과 함께 일본 사계극단 공연을 관람한 후 극단 내 한국배우들과의 미팅을 가지면서 타국에서 열연하는 한국배우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4차 뱃부에서 열리는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연주회에는 마침 한일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뱃부에서 지휘봉을 잡은 정명훈과 아르헤리치가 협연하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을 관람하기도 했다.

5,6차는 아시아 최초로 오픈된 동경 디즈니리조트 내 '태양의 서커스' 전용관 ZED와 마카오 베네치안 리조트 내 'ZAIA' 관람을 개막일날 함께 함으로서 공연 원정대의 얼리어 댑터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5차 일본 방문시에는 요꼬하마 옆 아자미노에 위치한 극단 사계 아트센터를 방문, 수준높은 공연, 창작지원센터를 탐방했으며, 이례적으로 극단 사계의 대표인 아사리 게이타와 다과를 나누며 양국의 공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6차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자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 베네치안 리조트 내 '태양의 서커스 ZAIA'를, 그리고 2009년 첫 원정대였던 7차는 가까운 후쿠오카에서 뮤지컬 '라이온킹'과 '미스사이공을'을 관람했다. 비록 뮤클 해외원정대가 민간이고 소수이지만, 한일 문화교류의 하나라는 자부심과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계적으로 닥쳐온 경기한파와 환율 급등으로, 해외원정대의 구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내 유일의 해외 공연원정대로서, 그 명맥은 계속 이어오고 있다. 2009년 올해는 5월 뱃부 '마르타 아르헤리치 뮤지컬 페스티발'과 마카오와 동경에서 만나는 3편의 '태양의 서커스 Corteo, ZED, ZAIA'를, 그리고 뮤클 해외원정대 10차를 맞는 오는 7월에는 '드림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유럽의 음악축제가 열리는 스위스 베르비에,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잘츠부르크를 다녀올 계획이다.

해외공연 관람이라 간혹 눈총어린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공연에 대한 열정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좋은 공연을 보고 선진 공연문화를 배우는 뮤클 해외원정대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교향악축제 참가

4월 21일 오후 8:00 서울 예술의전당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인 '2009 교향악축제'에 참가, 교향악축제 마지막 날인 4월 21일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2009 교향악축제는 지난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행사로, 서울과 지방간의 음악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시도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연주자와 청중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음악축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4월 3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7개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이번 2009 교향악축제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와 '한국의 베토벤'으로 찬사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유영욱의 협연으로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20a, 피아노협주곡 제 1번 작품 23, 교향곡 제 4번 바단조 작품 36 등 차이코프스키의 주요 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09 교향악축제 참가에 앞서 4월 17일 제 448회 정기연주회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먼저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예술단 4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4월 한달동안 관객들을 직접 찾아나서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과 시청 '로비콘서트'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4월 1일 덕문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온천시민공원과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30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로비콘서트' 4월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4월 22일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4월 1일(수) 오후 3:00 덕문고등학교 초청공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4월 3일(금) 오후 7:00 온천시민공원 '연제한마당축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무용단
4월 25일(토) 오후 7:00 덕천초등학교 '북구구민 화합 마당놀이'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무용단
4월 25일(토)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새봄맞이 봄의 향연, 토요라이브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4월 28일(화) 오후 2:00 경일중학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초청공연'
4월 30일(목) 오후 3:00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찾아가는 시립극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청 로비 콘서트

4월 22일 오후 12: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새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던 지난 3월 13일, 3월 테마여행을 떠나는 35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설렌 마음으로 따뜻한 봄 야유회를 기대했던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새벽부터 내리는 비는 아쉬움을 더했지만, 기나긴 가뭄 끝에 내리는 모처럼의 귀중한 단비라 모두 밝은 표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매월 한번 떠나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역시 일상속에서 가질 수 있는 한줄기 시원한 단비가 아니었을까.

3월의 테마여행지는 찬란한 대가야문화가 숨쉬는 역사의 고장 고령.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돈희, 이현주, 이혁우씨가 4월 정기공연을 앞두고 바쁜 일정속에도 기꺼이 이번 테마여행에 동행했다. 두시간만에 고령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우선 고령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부터 관람을 시작했다.

대가야와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 왕릉이 모여있는 주산 기슭에 자리잡은 '대가야왕릉전시관'과 '대가야역사관', 그리고 우륵선생이 음악활동을 펼쳤던 정정골에 자리잡은 '우륵박물관'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가야역사관'은 대가야의 여명과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 등 테마별 전시관으로 꾸며져 구석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과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또,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제 44호분'을 실물크기 그대로 재현한 '대가야왕릉전시관'은 재현된 고분 내부속으로 관람객들이 들어가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모습 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마중나온 정혜영 문화유산해설사의 인솔로 '대가야역사관'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을 둘러봤다.

"대가야 무덤은 평지가 아닌 산기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봉분 속에 무덤 주인공과 순장자를 함께 묻는게 대가야 무덤의 특징입니다."

맑은 날이면 박물관 뒤편 산기슭에 줄지어선 고분군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대가야역사관에서부터 10분여거리 떨어져 있는 '우륵박물관'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과 가야금'을 주제로 한 이색 테마박물관으로, 우륵과 가야금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에서부터 가야금의 발전사, 가야금 명인 등 등 우륵과 가야금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우륵박물관 관람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인근 개실마을로 발길을 옮겼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이라는 뜻을 지닌 개실마을은 영남 사림학파의 중심인물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350년간 살아온 집성촌이다.

개실마을에서 제공한 맛있는 점심식사로 이른 아침 출발로 허기졌던 배를 양껏 채운 정기회원들은 정혜영 해설사의 인솔로 마을탐방에 나섰다. 고풍스런 기품이 서려있는 점필재 종택은 앞쪽의 사랑채와 뒤편의 안채, 좌우의 고방채와 중사랑채가 전체적으로 ㅁ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 뒤편에는 선생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까지 있어 영남 전통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김종직 선생의 유물을 보관하던 서림각에는 현재 유물 사진만이 남아있는데, 원래 이 곳에 보관되었던 유물은 현재 대가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나지막한 돌담길을 따라 전통한옥이 빚어내는 고풍스러운 마을 풍경에 정기회원 가족들은 잠시나마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눈이 즐거웠으니 이제는 입이 즐거워야 할 때, 이번 테마여행의 첫 먹거리 체험은 '엿만들기'이다. 금방 만들어진 뜨끈뜨끈한 검은 빛깔의 조청을 2인 1조가 되어 늘이기를 반복하자 점차 흰 엿가락 색깔로 변하면서 회원들의 탄성도 절로 나온다.

다음 일정은 부산시립예술단 단원과의 만남. 이번 테마여행에 동행했던 부산시립극단 단원 이돈희, 이현주, 이혁우 씨의 신명나는 품바 한마당이 펼쳐진다. 배우들의 너스레에 한바탕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딸기따기 체험에 나선 정기회원 가족들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신선한 딸기를 그 자리에서 직접 따서 맛보며 새봄의 싱그러움을 느끼보기도 했다.

"매년 4월이면 대가야체험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4월 9일부터 나흘간 대가야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대가야의 대항해'라는 주제로 고대왕국으로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대가야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월에도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종일 친절한 미소로 정기회원 가족들을 인솔했던 정혜영 해설사의 배웅을 뒤로 하고 정기회원 가족들은 부산으로 향했다.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펀

5월 민족문화의 산실 경주 남산

2009년 5월에는 **민족문화의 산실 경주 남산**으로 역사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을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4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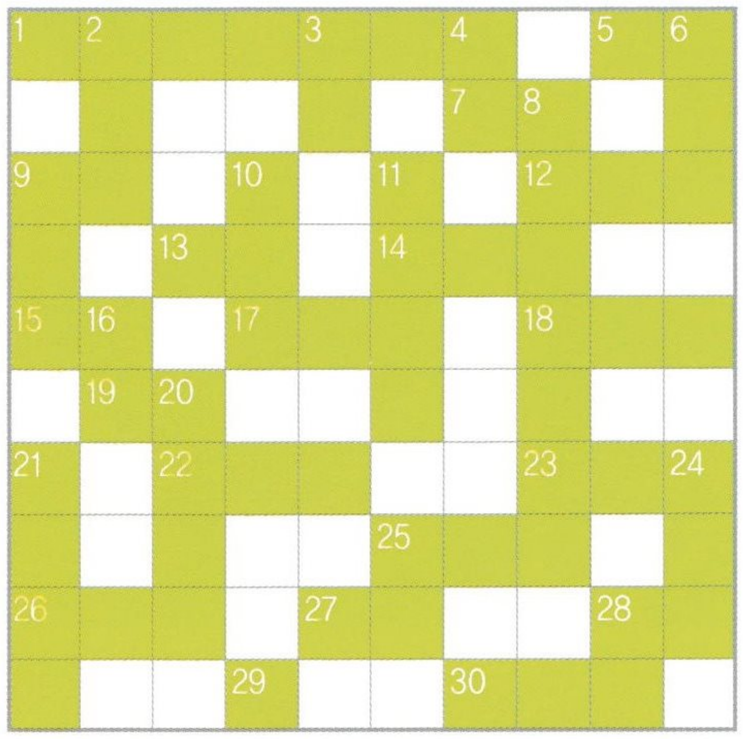
4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권다정(해운대구 좌동)
김경숙(부산진구 초읍동)
김현미(기장군 기장읍)
박시웅(부산진구 당감3동)
박풍식(동래구 안락2동)
반택만(남구 대연4동)
오선희(해운대구 우1동)
이미정(사하구 하단동)
정충옥(부산진구 전포2동)
채지원(동래구 안락2동)

엽서당첨자

김백운(수영구 광안 3동)
김정순(남구 대연3동)
김창주(북구 금곡동)
명영정(동래구 안락1동)
신기연(금정구 구서2동)
염명숙(동래구 안락2동)
오서향(강서구 대저1동)
제수부(해운대구 좌동)
진영주(동래구 안락2동)
최진여(서구 암남동)



가 로

1. 4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장승설화를 바탕으로 우리네 삶을 신명나게 풀어낸 집단창작극이다.
5.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데뷔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장편소설.
7.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해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 서양장기.
9. 숙종, 영조의 탕평론을 이어받아 왕정체제를 강화하여 진정한 위민(爲民)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한 조선 제 22대 왕.
12.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또는 그 경기. 손과 발, 또는 몸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차기, 지르기, 막기 따위의 기술을 구사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한다.
13. 한 독주자가 다른 독주자나 악단 따위와 함께 한 악곡을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
14. 민족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다수 만들어 오늘날 노르웨이 음악의 대표적 음악가로 평가받는 노르웨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대표작으로 페르귄트, 피아노협주곡 등이 있다.
15. 우리나라 해군의 근거지인 군항도시로, 매년 3월말 벚꽃축제로도 유명한 군항제가 펼쳐진다.
17.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의 장군과 포로인 에티오피아의 공주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베르디의 오페라.
18.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아카데미아를 개설하여 생애를 교육에 바쳤다.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 국가의 사상으로 유명하다.
19. 2007년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은 곳.
22.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위.
23. 서울의 행정구역. 한국전쟁 이후 미8군 기지가 주둔하여 미군들의 위락지대로 번창하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관광지대로 자리잡으면서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25. 오페라, 뮤지컬, 방송프로그램 등의 흥행을 위해 인재를 결정하는 채용 시험.
26. 시속 약 200km 이상으로 운행되는 고속 전철. 우리나라는 KTX, 프랑스는 테제베(TGV), 그리고 일본은 ○○○.
27. 1970년에 발표된 소설가 박완서의 데뷔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1년 겨울 서울을 배경으로, 시대의 아픔을 통찰한 예술인의 혜안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28.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방법.
29. 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해 나무, 종이, 흙 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가면.
30. 미국의 소설가 멜빌이 지은 장편소설로, 작품속에 등장하는 흰 고래의 이름이기도 하다.

세 로

2. 초장, 중장 가운데 어느 한 장이 평시조보다 1음보 정도 더 길어진 시조. 중시조.
3. 돌조갯과의 하나. 9~10월에 산란하며 모래진흙 속에 산다. 벌교○○이 유명하다.
4. 독일의 시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지철학을 계승하는 '생의 철학'의 기수이며 키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지칭된다. 대표작으로 '반시대적 고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등이 있다.
6.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사실주의적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그림으로, 전통적 미인을 섬세하고 깔끔한 선으로 그려내고, 엷은 채색을 함으로써 더욱 단아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8.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9.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1994년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유명한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10.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 무대에서 정상권에 오른 선수로, 한국인 최초로 ISU(국제빙상연맹) 주관 그랑프리 시리즈 및 그랑프리 파이널, 4대륙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1. 이라크의 수도.
16.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사자와 비슷하나 머리에 뿔이 있다.
20. 덴마크의 동화작가.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등 아동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많은 걸작동화를 남겼다.
21.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24.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와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
25. 바둑 놀이의 하나. 두 사람이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한 개씩 번갈아 놓다가, 외줄로나 모로 다섯 개를 잇따라 먼저 놓는 사람이 이긴다.
28. 로마네스크에 이어 르네상스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행하던 미술양식. 건축양식에서는 높은 첨탑으로 된 직선적 구성과 창과 출입구의 위가 뾰족한 아치형으로 된 건이 특징이다.

지난호 정답

지	킬	앤	하	이	드			니	
		디		휘		애	너	벨	리
마		워	낭	소	리			룽	
블	랙	홀			코	펜	하	겐	
링			캠	코	더			의	
	쑥			다		촉		반	크
나		헤	이	리			토	지	
폴	란	드			부	석	사		이
레		윅		포	럼		구	운	몽
옹	주		부	항		쇼	팽		룡

퍼즐당첨자 명단

■ 나랏소
박미정(해운대구 우2동)
박석수(부산진구 범천동)
최진여(서구 암남동)
김명화(남구 용당동)
황미애(남구 남천동)

■ 큰집
구진영(영도구 청학동)
윤지현(서구 초장동)
최은영(사하구 신평2동)
이혜원(사상구 감전 1동)
박태남(사하구 하단동)

■ 공간 소극장
김정희(남구 대연동)
나정환(남구 문현동)
문정희(연제구 거제3동)
손영일(부산진구 당감동)
정은정(사하구 괴정동)

■BS부산은행조은극장
이유나(김해시 내동)
조윤나(사하구 신평2동)
오서향(강서구 대저1동)
이현주(연제구 거제2동)
이경희(동구 초량동)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4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부산에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지킬의 신사적인 면과 하이드의 광적인 면을 유감없이 보여준 류지킬님(류정한),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루시역을 맡은 소냐님, 너무 너무 연기도 노래도 훌륭해서 또 보고 싶네요. '지킬 앤 하이드' 를 보여준 울 남편 너무 너무 고마워요.

- **정 지 영**(남구 대연3동)

연극 '라디오 잠시 길을잃다'

라디오DJ 하지만에게 일어나는 좌충우돌 이야기와 관객이 직접 쓴 사연과 노래들. 그의 기분 좋아지는 주문 UP UP UP~!!. 1인 연극으로 관객들이 PD, 작가 등의 역할에 참여하여 함께 내용을 만들어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이였습니다. 다음작품도 기대할께요··

- **문 민 규**(중구 영주동)

양경아 바이올린 독주회

보헤미안의 동양적인 색채에 아메리카 낯선 대륙의 인상이 혼합된 듯한 드보르작의 아름다운 소나티네와 북구의 황량하고 음울한 우수가 오히려 음악적 깊이를 더해주는 그리그 특유의 정서가 좋았다. 무엇보다 오늘 연주회의 백미는 미국의 낯선 현대음악작곡가 죤 코리글리아노(John Corigliano, 1938~, 미국)의 소나타, 특히 3악장(Lento-느리게)의 마지막 부분을 잊을 수가 없다. 역시 현대음악가 아르보 페르트(Arvo Part, 1935~, 에스토니아)의 '거울속의 거울' 과 맥을 같이하는 곡이라 생각되어 현대의 혼란스런 우리네 삶을 한 순간에 평정해 주는 듯한 Simple한 멜로디를 잊을 수가 없다. 상당히 돋보인 김현정 피아니스트께도 박수를 보낸다.

- **김 중 옥**(금정구 구서2동)

부산시립교향악단 447회 정기연주회

지인들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를 관람가는 날, 설렘을 가득 품으니 하루 일과가 금방 끝난다. 협연자가 눈부신 탤런트라는 칭호를 가진 데니스 샤포발로프라는데 오늘은 어떤 연주를 감상하게 될런지…. 오랜만에 듣는 곽근수님의 멋진 목소리와 곡에 대한 설명을 듣고 드디어 시작된 연주. 풍부한 비브라토에 담긴 연주자의 감성과 여유있는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휴식 후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지휘로 시작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 10번, 장대한 스케일과 친숙한 멜로디로 약 55분에 이르는 기나긴 곡을 무리없이 연주해준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최 인 주**(양산시 물금읍)

연극 '그 여자들, 다시 통닭을 먹다'

지속되는 'calling you' 의 선율이 그 여자들의 희망 통닭집과 함께 한다. 기쁨, 슬픔, 분노, 화해, 용서, 사랑을 재치있는 유머와 장치들을 활용~~~~~대만족스런 관극이었다. 다시 통닭을 먹는 그 여자들, 삶의 먹먹함을 걷어 내는 일일 것이고, 그래도 삶이 희망적이라는 것일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과 통닭이라도 뜯고 싶다. 소금찍어서!

- **박 미 라**(북구 만덕동)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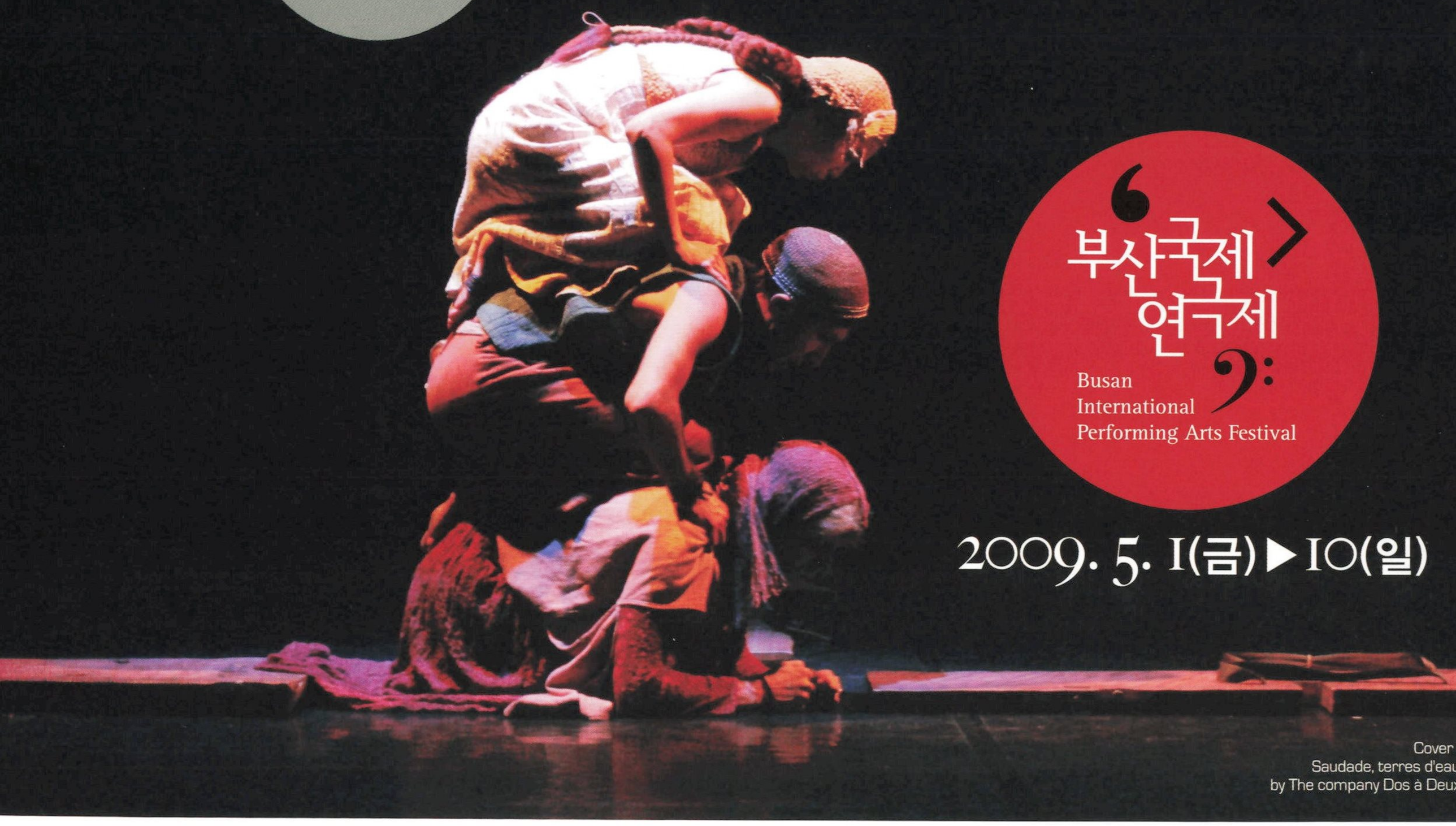
www.bipaf.org

Body Never Tells a Lie!

가장 솔직한 언어, 몸

신체극과 마임

Physical Theatre & Mime



Cover
Saudade, terres d'eau
by The company Dos à Deux

'부산국제 연극제'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09. 5. 1(금) ▶ 10(일)

9개국 24개 작품

한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경성대학교, 용천지랄소극장, 공간소극장, 액터스소극장, 6번출구소극장, 초콜릿팩토리

-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주관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티켓예매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T.051_819_6920 BS 부산은행 Busan Bank 전지점 / G마켓 www.gmarket.co.kr 1566-5701

국내 정상의 스탭들이 뭉쳤다

무엇이 될꼬하니

부산시립극단
제 34회 정기공연

이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다만 흐르는 소리뿐인 내 피의 몇 세기!

유럽진출을 탐색해 보는 부산판
무엇이 될꼬하니!
부산의 소리! 부산의 몸짓! 부산의 가락!

원작 대본 구성 김 정 옥 / 부산시립 대본구성 이 윤 택 / 연출 채 윤 일 / 연희지도 김 경 화 · 이 돈 희

2009년 4월 2일(목)-4월 4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관람권 : R석 20,000원
S석 1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후원 THE DAILY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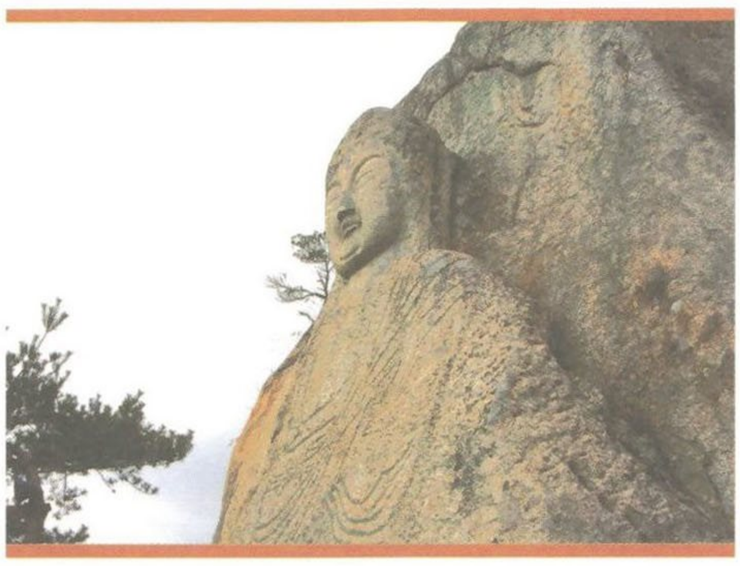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부산시립극단 051) 607-6137 www.busantheater.org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언제나 좋은 자리!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타 1588-789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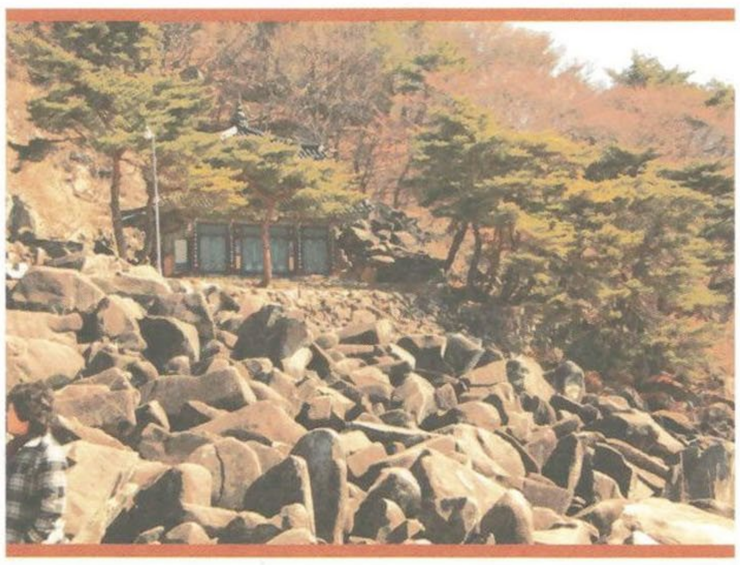
2009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5월 8일(금) 민족문화의 산실 경주 남산

왕릉 13기, 산성지(山城址) 4개소, 사지(寺址) 147개소, 불상 118체, 탑 96기 등 672점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 남산은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서라벌의 진산, 역사의 산이다. 자연과 예술이 조화되어 있는 민족문화의 산실 남산으로 역사여행을 떠난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서남산-탑골 부처바위, 보리사 석골좌상
▷ 12:00 중식
▷ 13:00 동남산-삼릉, 선각육존불, 상선암 마애대좌불, 배리삼존불, 포석정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2009년 6월 12일(금) 여름이 오는 길목-밀양, 원동

김수로왕이 창건한 천년고찰 만어사와 우리나라 3대 누각중 하나인 밀양 '영남루', 아랑의 정절을 기리는 아랑각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원동의 명물 매실 따기 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진다.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원동 순매원 도착, 매실 따기 체험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2:00 중식
▷ 13:00 천년고찰 삼랑진 만어사 답사
▷ 15:00 밀양 영남루, 아랑각 답사
▷ 17:00 부산 출발

■ 테마여행 응모방법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고 4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펀(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 · 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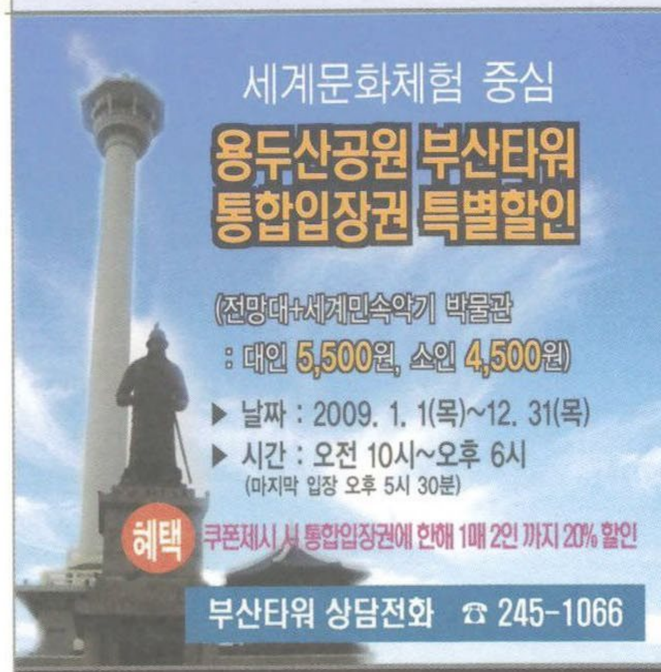
염쟁이 유씨 1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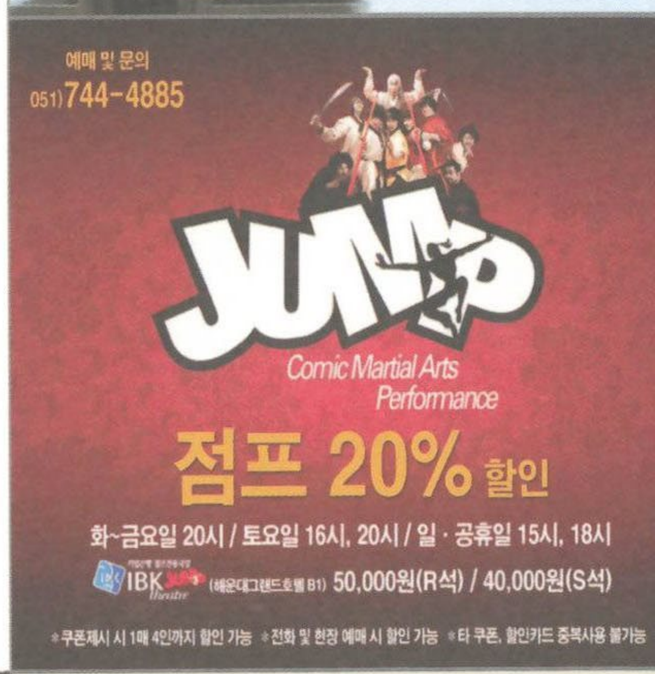
▶ 날짜
2009. 4. 10(금)~5. 17(일)

▶ 시간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극장용 마당놀이 학생부군신위

환장하겠네

연출 _ 박철수
출연 _ 이봉규, 최정연, 신신애, 정진각, 이창훈, 한정현, 오아랑, 오정해, 홍경인, 장용 외

4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5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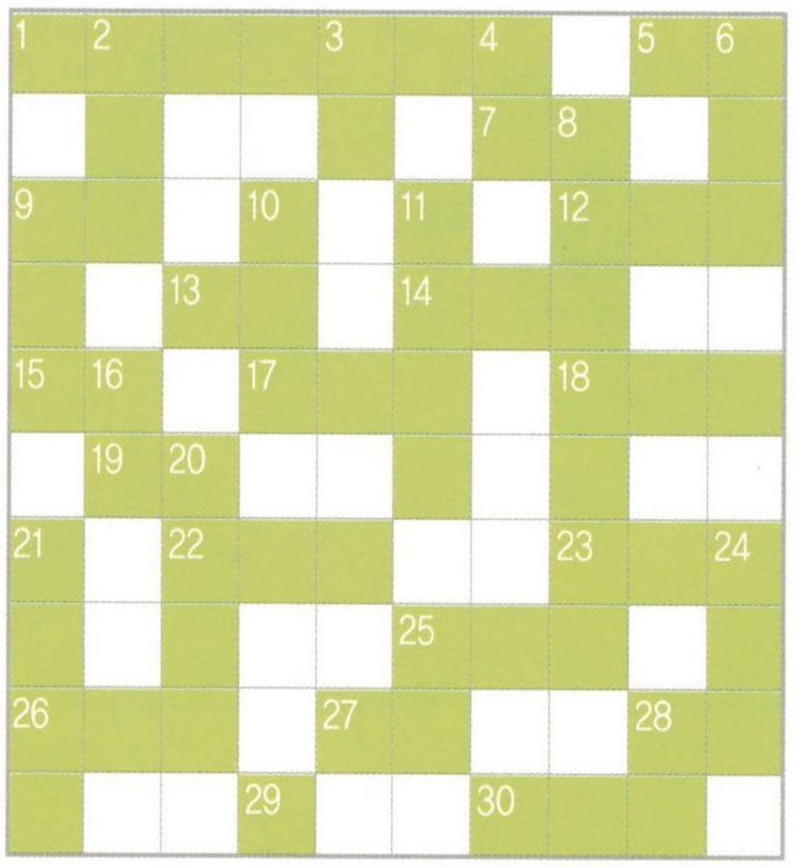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4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www.busanbank.co.kr

BS부산은행은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고객의 행복실현과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지역경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은행, 고객을 위한 은행
어려울 때 힘이 되는 BS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BS 부산은행
Busan Bank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비 5%할인 받자!!

*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051) 442-1271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SPRING 일본 벚꽃여행

벚꽃을 찾아 떠나는 향기로운 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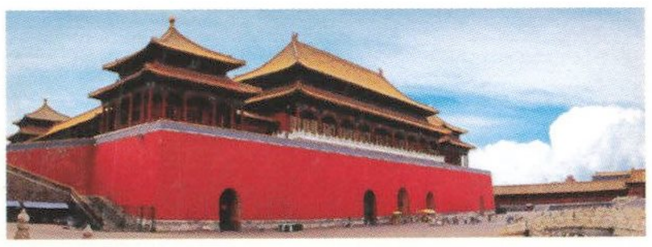
코비를 이용한 일본의 대표적인 온천여행
북큐슈 온천여행 4일
JKP721 449,000원~

벚꽃花見-3色문화체험
오사카/교토/나라 4일
JOP702 88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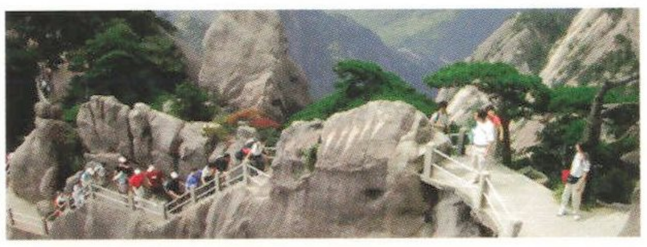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와 함께
도쿄/디즈니/하코네 4일
JTP702 1,149,000원~

3대 명소 중국여행

중국! 천하제일의 광활한 절경 여행



봄맞이 특가
북경/만리장성/용경협 4일
CNP751 4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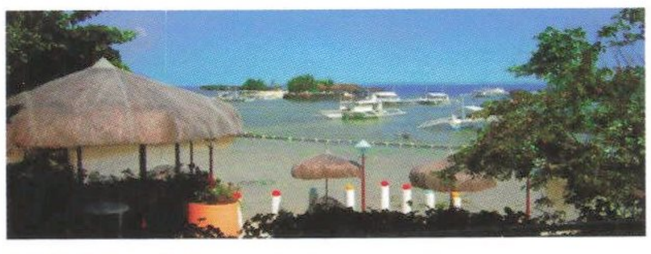


아름다운 유람과 명산
항주/황산/삼청산 5일
CCP743 74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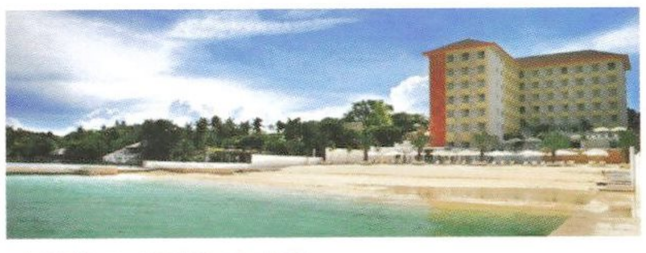
단5회한정-초초특가
상해/항주or소주/장가계 5일
CCP752 799,000원~

사이판&세부 직항여행

부산에서 직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실속여행-싸Day
세부 EGI 리조트(신관) 4일
APP754 399,000원~



아일랜드 호핑투어 포함
세부 마이크로텔 리조트 4일
APP753 699,000원~

여성 5%할인
사이판 특급 피에스타 5일
PSP702 999,000원~

베스트셀러 동남아여행

하이하나에서 추천하는 4월 동남아 여행

초특가 팍팍!
방콕/파타야 (대한항공) 5일
AAP701 439,000원~

NEW 실속 (일급호텔사용)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5일
APP701 649,000원~

NEW 정통
베트남 하롱베이/앙코르왓 5일
AVP701 8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직통전화 070-8270-8858 / 이순남 직통전화 070-8270-7770

전국 대표전화 (국번없이)
051) 442-1271

부산시립합창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창작 오페라 음악극

울돌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대 본·작 곡 이용주
예술감독·지휘 김강규
연 출 정순지

2009. 4.28(화)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립합창단 후원 THE DAILY Focus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5 www. 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BS 부산은행